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김 두 화*

〈 목 차 〉

I. 머리말	IV. 요약 및 제언
II. 조사방법 및 내용	참고 문헌
III. 결과 분석	Abstract

I. 머리말

본 조사의 목적은 신입생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대학생활, 대학의 이미지와 자긍심, 학부(과) 선택의 과정 및 지속적인 수학여부, 교수와의 관계, 고교생활, 대인관계, 사회문제, 가치관, 상담·봉사센터의 이용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와 학사행정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본 조사·연구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어서 신입생들의 특성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다.

II.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02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02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각 학부(과)별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고, 전체 신입생 2,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929명이 질문에 응답하여 전체 신입생의 72.5%의 응답율을 보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교수

였으며, 대학 및 남녀별 조사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및 남녀별 조사대상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응답자수	263 (13.6)	228 (11.8)	312 (16.2)	124 (6.5)	121 (6.3)	220 (11.4)	293 (15.2)	347 (18.0)	21 (1.1)	1071 (55.5)	858 (44.5)	1929 (100.0)

신입생의 출생년도별 빈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83년에 출생한 학생이 1,389명(72.0%), '84년 이후 출생학생이 318명(16.5%), 그 다음 '82년 출생학생이 115명(6.0%)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연령은 5.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순위 경향은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인 경우 '83년도와 그 이후에 출생한 학생이 88.0%, 여학생인 경우 89.0%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하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출생년도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출생년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76년이전	2 (0.8)	17 (7.5)	5 (1.6)	-	2 (1.7)	-	2 (0.7)	2 (0.6)	-	16 (1.5)	14 (1.6)	30 (1.6)
'77년	1 (0.4)	2 (0.9)	-	-	-	-	-	-	-	2 (0.2)	1 (0.1)	3 (0.2)
'78년	-	6 (2.6)	-	-	-	1 (0.5)	4 (1.4)	-	-	6 (0.6)	5 (0.6)	11 (0.6)
'79년	1 (0.4)	4 (1.8)	2 (0.6)	2 (1.6)	-	-	4 (1.4)	-	1 (4.8)	11 (1.0)	3 (0.3)	14 (0.7)
'80년	-	3 (1.3)	1 (0.3)	-	-	1 (0.5)	6 (2.0)	2 (0.6)	-	8 (0.7)	5 (0.6)	13 (0.7)
'81년	5 (1.9)	4 (1.8)	4 (1.3)	-	-	2 (0.9)	14 (4.8)	1 (0.3)	-	20 (1.9)	10 (1.2)	30 (1.6)
'82년	12 (4.6)	12 (5.3)	16 (5.1)	16 (12.9)	5 (4.1)	11 (5.0)	29 (9.9)	14 (4.0)	-	62 (5.8)	53 (6.2)	115 (6.0)
'83년	196 (74.5)	152 (66.7)	229 (73.4)	90 (72.6)	89 (73.6)	166 (75.5)	196 (66.9)	257 (74.1)	14 (66.7)	754 (70.4)	635 (74.0)	1389 (72.0)

구분 출생년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84년이후	45 (17.1)	27 (11.8)	53 (17.0)	16 (12.9)	25 (20.7)	38 (17.3)	37 (12.6)	71 (20.5)	6 (28.6)	189 (17.6)	129 (15.0)	318 (16.5)
무응답	1 (0.4)	1 (0.4)	2 (0.6)	-	-	1 (0.5)	1 (0.3)	-	-	3 (0.3)	3 (0.3)	6 (0.3)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01학년도에 사용했던 질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동일하다. 조사내용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적사항 : 생활근거지, 입학 후 거주지, 재수경험의 여부와 유형, 보호자와의 관계, 부모의 생존여부, 보호자의 학력 및 직업, 가족수 및 가족의 월수입, 가정분위기,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과 부모의 관심도
- 2) 대학생활 : 재학중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자, 장학금 필요여부와 이유, 아르바이트 욕구정도와 원하는 이유, 대학 진학의 목적, 대학생활중 하고 싶은 일,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분야,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점
- 3) 대학선택 : 본교에 대한 이미지 및 인지도, 지원한 이유 및 지원시 정보의 수집경로, 입학후 자긍심의 정도
- 4) 학부(과) 선택 : 지망하게 된 과정 및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선택요인 및 선택시 정보의 수집 경로, 선택시기 및 인지도, 장래 전공과 관련된 직종의 희망여부, 선택한 전공의 지속적인 수화여부
- 5) 교수와의 관계 : 교수에 대한 기대
- 6) 고교생활 :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여부와 유형,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 7) 대인관계 : 대인관계의 정도, 이성친구의 유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 개인문제 의논 대상
- 8)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 우리나라의 당면문제 및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 9) 가 치 관 : 성공의 조건
- 10) 상담봉사센터의 이용 : 상담 희망여부와 상담내용

이상과 같이 10개 영역 4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단과대학 및 성별로 응답내용을

집계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Ⅲ. 결과 분석

1. 인적 배경

1) 학생의 생활근거지

신입생의 생활근거지는 다음 <표 3>과 같다. '제주시'가 58.1%, '서귀포시' 10.2%, 그외 '읍·면' 단위가 21.0%이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10.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전년 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시'인 경우 61.9%→58.1%(남 : 59.4%→52.7%, 여 : 64.6%→64.8%)로 다소 감소하였고, '타 시·도'인 경우는 8.6%→10.7%(남 : 11.1%→13.1%, 여 : 6.7%→8.1%)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타 시·도'에 생활근거지를 둔 신입생들의 분포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27.8%), 농과대(17.3%), 자연대(1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생의 생활근거지

<단위 : 명(%)>

구분 생활근거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제 주 시	157 (59.7)	141 (61.8)	154 (49.4)	77 (62.1)	61 (50.4)	122 (55.5)	156 (53.2)	236 (68.0)	16 (76.2)	564 (52.7)	556 (64.8)	1120 (58.1)
서귀포시	45 (17.1)	20 (8.8)	25 (8.0)	12 (9.7)	16 (13.2)	13 (5.9)	29 (9.9)	34 (9.8)	2 (9.5)	105 (9.8)	91 (10.6)	196 (10.2)
애 월 읍	5 (1.9)	10 (4.4)	2 (0.6)	3 (2.4)	4 (3.3)	8 (3.6)	8 (2.7)	6 (1.7)	-	23 (2.1)	23 (2.7)	46 (2.4)
한 립 읍	6 (2.3)	4 (1.8)	5 (1.6)	6 (4.8)	-	12 (5.5)	6 (2.0)	18 (5.2)	-	40 (3.7)	17 (2.0)	57 (3.0)
한 경 면	-	1 (0.4)	2 (0.6)	1 (0.8)	1 (0.8)	2 (0.9)	-	-	-	4 (0.4)	3 (0.3)	7 (0.4)
대 정 읍	5 (1.9)	12 (5.3)	6 (1.9)	2 (1.6)	3 (2.5)	6 (2.7)	7 (2.4)	5 (1.4)	-	32 (3.0)	14 (1.6)	46 (2.4)
안 덕 면	3 (1.1)	6 (2.6)	2 (0.6)	3 (2.4)	3 (2.5)	3 (1.4)	4 (1.4)	7 (2.0)	-	20 (1.9)	11 (1.3)	31 (1.6)
남 원 읍	10 (3.8)	12 (5.3)	6 (1.9)	3 (2.4)	4 (3.3)	4 (1.8)	9 (3.1)	8 (2.3)	1 (4.8)	36 (3.4)	21 (2.4)	57 (3.0)

구분 생활근거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표 선 면	2 (0.8)	-	2 (0.6)	1 (0.8)	-	4 (1.8)	1 (0.3)	4 (1.2)	-	11 (1.0)	3 (0.3)	14 (0.7)
성 산 읍	2 (0.8)	4 (1.8)	2 (0.6)	1 (0.8)	2 (1.7)	5 (2.3)	4 (1.4)	2 (0.6)	-	11 (1.0)	11 (1.3)	22 (1.1)
구 좌 읍	3 (1.1)	5 (2.2)	5 (1.6)	3 (2.4)	-	5 (2.3)	4 (1.4)	5 (1.4)	-	22 (2.1)	8 (0.9)	30 (1.6)
조 천 읍	8 (3.0)	7 (3.1)	6 (1.9)	2 (1.6)	2 (1.7)	12 (5.5)	8 (2.7)	11 (3.2)	-	39 (3.6)	17 (2.0)	56 (2.9)
우 도 면	-	-	1 (0.3)	-	-	-	-	2 (0.6)	-	2 (0.2)	1 (0.1)	3 (0.2)
추 자 면	1 (0.4)	2 (0.9)	6 (1.9)	2 (1.6)	4 (3.3)	4 (1.8)	12 (4.1)	1 (0.3)	-	20 (1.9)	12 (1.4)	32 (1.7)
서 울	5 (1.9)	1 (0.4)	25 (8.0)	4 (3.2)	3 (2.5)	4 (1.8)	7 (2.4)	1 (0.3)	1 (4.8)	28 (2.6)	23 (2.7)	51 (2.6)
부 산	1 (0.4)	-	2 (0.6)	-	-	-	6 (2.0)	-	1 (4.8)	5 (0.5)	5 (0.6)	10 (0.5)
대 구	1 (0.4)	-	-	-	-	1 (0.5)	3 (1.0)	-	-	3 (0.3)	2 (0.2)	5 (0.3)
대 전	-	2 (0.9)	5 (1.6)	-	2 (1.7)	7 (3.2)	1 (0.3)	3 (0.9)	-	16 (1.5)	4 (0.5)	20 (1.0)
인 천	-	-	9 (2.9)	-	1 (0.8)	1 (0.5)	5 (1.7)	-	-	9 (0.8)	7 (0.8)	16 (0.8)
광 주	1 (0.4)	1 (0.4)	7 (2.2)	2 (1.6)	2 (1.7)	1 (0.5)	4 (1.4)	1 (0.3)	-	16 (1.5)	3 (0.3)	19 (1.0)
경 기	-	-	-	-	1 (0.8)	-	1 (0.3)	-	-	2 (0.2)	-	2 (0.1)
강 원	2 (0.8)	-	5 (1.6)	1 (0.8)	1 (0.8)	-	2 (0.7)	1 (0.3)	-	8 (0.7)	4 (0.5)	12 (0.6)
경 북	2 (0.8)	-	13 (4.2)	-	8 (6.6)	2 (0.9)	11 (3.8)	1 (0.3)	-	25 (2.3)	12 (1.4)	37 (1.9)
경 남	-	-	1 (0.3)	-	1 (0.8)	-	-	1 (0.3)	-	2 (0.2)	1 (0.1)	3 (0.2)
충 북	-	-	1 (0.3)	-	-	-	1 (0.3)	-	-	2 (0.2)	-	2 (0.1)
충 남	2 (0.8)	-	5 (1.6)	-	1 (0.8)	-	1 (0.3)	-	-	5 (0.5)	4 (0.5)	9 (0.5)

구분 생활근거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 북	2 (0.8)	-	14 (4.5)	1 (0.8)	1 (0.8)	4 (1.8)	2 (0.7)	-	-	21 (2.0)	3 (0.3)	24 (1.2)
전 남	-	-	-	-	-	-	1 (0.3)	-	-	-	1 (0.1)	1 (0.1)
무 응답	-	-	1 (0.3)	-	-	-	-	-	-	-	1 (0.1)	1 (0.1)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 입학후 거주하고 싶은 곳

신입생들의 입학후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는 '본가'가 64.1%로 가장 많고, '자취'가 22.4%, '기숙사'가 6.2%, '친척 및 친지'가 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본가'(68.4%→64.1%)는 다소 감소하였고, '자취'(20.5%→22.4%), '기숙사'(4.2%→6.2%), '친척 및 친지'(4.3%→4.8%)인 경우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른 대학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숙사'인 경우는 농과대, 경상대, 의과대, 자연대생 순으로 타 대학생 보다 높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학생이 6.7%(72명)로서 여학생의 5.6%(48명)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입학후 거주하고 싶은 곳

〈단위 : 명(%)〉

구분 희망거주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본 가	181 (68.8)	160 (70.2)	163 (52.2)	69 (55.6)	76 (62.8)	139 (63.2)	181 (61.8)	252 (72.6)	16 (76.2)	669 (62.5)	568 (66.2)	1237 (64.1)
친척 및 친지	9 (3.4)	11 (4.8)	18 (5.8)	11 (8.9)	9 (7.4)	10 (4.5)	10 (3.4)	14 (4.0)	1 (4.8)	53 (4.9)	40 (4.7)	93 (4.8)
자 취	56 (21.3)	50 (21.9)	87 (27.9)	34 (27.4)	19 (15.7)	54 (24.5)	63 (21.5)	68 (19.6)	2 (9.5)	240 (22.4)	193 (22.5)	433 (22.4)
하 숙	4 (1.5)	1 (0.4)	13 (4.2)	3 (2.4)	3 (2.5)	3 (1.4)	12 (4.1)	3 (0.9)	-	35 (3.3)	7 (0.8)	42 (2.2)
기 숙 사	12 (4.6)	5 (2.2)	30 (9.6)	7 (5.6)	14 (11.6)	14 (6.4)	27 (9.2)	9 (2.6)	2 (9.5)	72 (6.7)	48 (5.6)	120 (6.2)
무 응답	1 (0.4)	1 (0.4)	1 (0.3)	-	-	-	-	1 (0.3)	-	2 (0.2)	2 (0.2)	4 (0.2)

희망거주지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 재수경험의 여부와 유형

재수경험의 여부에 대해 신입생들의 89.4%(전년도 87.6%)는 재수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보다는 재수한 신입생이 줄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의 유형으로는 7.4%가 '1년 재수'를 하였고, '2년이상 재수'자는 1.7%였으며, '검정고시' 입학생은 0.3%였다. 대학별로 보면, 재수하지 않은 학생의 분포가 가장 높은 대학은 공과대로 94.5%, '1년 재수'는 사범대로 15.3%, '2년 재수'와 '3년이상 재수'는 각각 5.1%, 3.4%로 자연대생임을 알 수 있다.

〈표 5〉 재수경험 유형

(단위 : 명(%))

재수경험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없 다		246 (93.5)	190 (83.3)	289 (92.6)	101 (81.5)	112 (92.6)	206 (93.6)	233 (79.5)	328 (94.5)	19 (90.5)	953 (89.0)	771 (89.9)	1724 (89.4)
1년 재수		12 (4.6)	23 (10.1)	18 (5.8)	19 (15.3)	7 (5.8)	11 (5.0)	34 (11.6)	16 (4.6)	2 (9.5)	74 (6.9)	68 (7.9)	142 (7.4)
2년 재수		3 (1.1)	6 (2.6)	3 (1.0)	-	2 (1.7)	2 (0.9)	15 (5.1)	1 (0.3)	-	22 (2.1)	10 (1.2)	32 (1.7)
3년이상 재수		1 (0.4)	5 (2.2)	-	3 (2.4)	-	1 (0.5)	10 (3.4)	1 (0.3)	-	14 (1.3)	7 (0.8)	21 (1.1)
검정고시		-	2 (0.9)	1 (0.3)	1 (0.8)	-	-	1 (0.3)	1 (0.3)	-	5 (0.5)	1 (0.1)	6 (0.3)
무 응 답		1 (0.4)	2 (0.9)	1 (0.3)	-	-	-	-	-	-	3 (0.3)	1 (0.1)	4 (0.2)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4)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보면, 보호자가 '아버지'인 경우 87.4%, '어머니' 8.4%, '형·누나, 친척, 기타' 3.1%로서 '아버지'가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 (0.5%→0.5%), '친척' (0.8%→0.5%)가 줄어든 반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0.1%(87.3%→87.4%)와 0.6%(7.8%→8.4%)씩 조금 늘었다.

〈표 6〉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관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부	240 (91.3)	189 (82.9)	269 (86.2)	101 (81.5)	106 (87.6)	197 (89.5)	254 (86.7)	310 (89.3)	19 (90.5)	938 (87.6)	747 (87.1)	1685 (87.4)
모	13 (4.9)	28 (12.3)	28 (9.0)	11 (8.9)	9 (7.4)	18 (8.2)	29 (9.9)	25 (7.2)	1 (4.8)	89 (8.3)	73 (8.5)	162 (8.4)
형·누나	1 (0.4)	3 (1.3)	2 (0.6)	8 (6.5)	2 (1.7)	1 (0.5)	1 (0.3)	4 (1.2)	1 (4.8)	7 (0.7)	16 (1.9)	23 (1.2)
조부모	-	-	2 (0.6)	1 (0.8)	-	-	2 (0.7)	5 (1.4)	-	7 (0.7)	3 (0.3)	10 (0.5)
친척	2 (0.8)	2 (0.9)	1 (0.3)	2 (1.6)	1 (0.8)	1 (0.5)	-	1 (0.3)	-	6 (0.6)	4 (0.5)	10 (0.5)
기타	3 (1.1)	5 (2.2)	8 (2.6)	-	-	-	2 (0.7)	-	-	9 (0.8)	9 (1.0)	18 (0.9)
무응답	4 (1.5)	1 (0.4)	2 (0.6)	1 (0.8)	3 (2.5)	3 (1.4)	5 (1.7)	2 (0.6)	-	15 (1.4)	6 (0.7)	21 (1.1)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5)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양친 모두 살아 계신 경우' 91.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그 다음이 '어머니만 살아 계신 경우' 4.9%, '양친이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경우'도 5.8%, '양친 모두 안계신 경우'가 1.1%(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모의 생존여부

〈단위 : 명(%)〉

구분 생존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양친 모두 사망	4 (1.5)	5 (2.2)	2 (0.6)	1 (0.8)	3 (2.5)	-	2 (0.7)	4 (1.2)	-	9 (0.8)	12 (1.4)	21 (1.1)
모 사망	-	7 (3.1)	2 (0.6)	4 (3.2)	-	3 (1.4)	-	3 (0.9)	-	9 (0.8)	10 (1.2)	19 (1.0)
부 사망	11 (4.2)	14 (6.1)	16 (5.1)	9 (7.3)	7 (5.8)	11 (5.0)	16 (5.5)	11 (3.2)	-	58 (5.4)	37 (4.3)	95 (4.9)
양친 생존 동거	235 (89.4)	178 (78.1)	268 (85.9)	101 (81.5)	103 (85.1)	186 (84.5)	258 (88.1)	306 (88.2)	19 (90.5)	916 (85.5)	738 (86.0)	1654 (85.7)
양친 생존 별거 중	5 (1.9)	4 (1.8)	12 (3.8)	4 (3.2)	5 (4.1)	10 (4.5)	4 (1.4)	13 (3.7)	2 (9.5)	33 (3.1)	26 (3.0)	59 (3.1)
양친 생존 이혼	4 (1.5)	11 (4.8)	6 (1.9)	4 (3.2)	2 (1.7)	7 (3.2)	12 (4.1)	6 (1.7)	-	31 (2.9)	21 (2.4)	52 (2.7)
무 응답	4 (1.5)	9 (3.9)	6 (1.9)	1 (0.8)	1 (0.8)	3 (1.4)	1 (0.3)	4 (1.2)	-	15 (1.4)	14 (1.6)	29 (1.5)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6) 보호자의 학력

신입생 보호자의 학력을 보면, '고중퇴~고졸' 51.4%, '대중퇴~대졸' 22.9%, '중중퇴~중졸' 10.6%, '대학원졸이상' 6.3%, '초중퇴~초졸' 4.9%, '무학~고학'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보호자의 학력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가 감소(68.9%→66.9%)한 반면에 대학 및 대학원 중퇴, 또는 졸업자는 증가(27.7%→29.2%)하여 학부모의 학력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보호자의 학력

〈단위 : 명(%)〉

구분 보호자학력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학~고학	5 (1.9)	9 (3.9)	9 (2.9)	3 (2.4)	3 (2.5)	4 (1.8)	7 (2.4)	10 (2.9)	1 (4.8)	28 (2.6)	23 (2.7)	51 (2.6)
초중퇴~초졸	9 (3.4)	13 (5.7)	14 (4.5)	5 (4.0)	6 (5.0)	16 (7.3)	13 (4.4)	19 (5.5)	-	56 (5.2)	39 (4.5)	95 (4.9)

구분 보호자학력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중중퇴~중졸	29 (11.0)	27 (11.8)	35 (11.2)	9 (7.3)	10 (8.3)	31 (14.1)	27 (9.2)	34 (9.8)	2 (9.5)	122 (11.4)	82 (9.6)	204 (10.6)
고중퇴~고졸	130 (49.4)	124 (54.4)	158 (50.6)	71 (57.3)	62 (51.2)	116 (52.7)	138 (47.1)	180 (51.9)	12 (57.1)	557 (52.0)	434 (50.6)	99 (51.4)
대중퇴~대졸	66 (25.1)	44 (19.3)	77 (24.7)	28 (22.6)	28 (23.1)	41 (18.6)	73 (24.9)	79 (22.8)	6 (28.6)	238 (22.2)	204 (23.8)	442 (22.9)
대학원졸이상	20 (7.6)	9 (3.9)	17 (5.4)	8 (6.5)	11 (9.1)	9 (4.1)	28 (9.6)	19 (5.5)	-	57 (5.3)	64 (7.5)	121 (6.3)
무 응 답	4 (1.5)	2 (0.9)	2 (0.6)	-	1 (0.8)	3 (1.4)	7 (2.4)	6 (1.7)	-	13 (1.2)	12 (1.4)	25 (1.3)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7) 보호자의 직업

신입생 보호자의 직업을 보면, '농업'이 2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판매·서비스직' 15.7%, '상업' 13.7%, '행정사무직' 11.7%, '전문기술직' 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특성을 가진 직업인 '축산업', '어업', '수산업'은 4.3%로 전체적인 직업 분포에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농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신입생에 비해 1.6%(22.1%→20.5%)가 줄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보호자의 직업

〈단위 : 명(%)〉

구분 직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 문 직	23 (8.7)	16 (7.0)	19 (6.1)	6 (4.8)	7 (5.8)	9 (4.1)	21 (7.2)	17 (4.9)	1 (4.8)	59 (5.5)	60 (7.0)	119 (6.2)
전문기술직	18 (6.8)	19 (8.3)	23 (7.4)	10 (8.1)	5 (4.1)	27 (12.3)	20 (6.8)	26 (7.5)	1 (4.8)	84 (7.8)	65 (7.6)	149 (7.7)
육 체 노 동	12 (4.6)	9 (3.9)	7 (2.2)	7 (5.6)	5 (4.1)	6 (2.7)	6 (2.0)	9 (2.6)	-	35 (3.3)	26 (3.0)	61 (3.2)
경영관리직	11 (4.2)	15 (6.6)	36 (11.5)	8 (6.5)	8 (6.6)	9 (4.1)	14 (4.8)	9 (2.6)	2 (9.5)	62 (5.8)	50 (5.8)	112 (5.8)

구분 직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행정사무직	33 (12.5)	29 (12.7)	31 (9.9)	21 (16.9)	10 (8.3)	21 (9.5)	35 (11.9)	40 (11.5)	5 (23.8)	133 (12.4)	92 (10.7)	225 (11.7)
군인, 또는 경찰	9 (3.4)	7 (3.1)	5 (1.6)	1 (0.8)	4 (3.3)	4 (1.8)	8 (2.7)	3 (0.9)	2 (9.5)	22 (2.1)	21 (2.4)	43 (2.2)
농업	41 (15.6)	55 (24.1)	51 (16.3)	26 (21.0)	26 (21.5)	53 (24.1)	58 (19.8)	82 (23.6)	4 (19.0)	227 (21.2)	169 (19.7)	396 (20.5)
축산업	5 (1.9)	1 (0.4)	2 (0.6)	-	4 (3.3)	3 (1.4)	4 (1.4)	4 (1.2)	-	15 (1.4)	8 (0.9)	23 (1.2)
어업	2 (0.8)	5 (2.2)	6 (1.9)	1 (0.8)	2 (1.7)	8 (3.6)	9 (3.1)	8 (2.3)	-	28 (2.6)	13 (1.5)	41 (2.1)
수산업	2 (0.8)	1 (0.4)	5 (1.6)	2 (1.6)	-	5 (2.3)	2 (0.7)	2 (0.6)	-	10 (0.9)	9 (1.0)	19 (1.0)
판매·서비스직	40 (15.2)	38 (16.7)	53 (17.0)	18 (14.5)	19 (15.7)	34 (15.5)	38 (13.0)	59 (17.0)	3 (14.3)	169 (15.8)	133 (15.5)	302 (15.7)
상업	41 (15.6)	17 (7.5)	50 (16.0)	14 (11.3)	20 (16.5)	26 (11.8)	43 (14.7)	46 (13.3)	1 (4.8)	133 (12.4)	125 (14.6)	258 (13.4)
교직	20 (7.6)	7 (3.1)	11 (3.5)	6 (4.8)	6 (5.0)	4 (1.8)	22 (7.5)	15 (4.3)	1 (4.8)	43 (4.0)	49 (5.7)	92 (4.8)
무직	3 (1.1)	6 (2.6)	10 (3.2)	3 (2.4)	3 (2.5)	8 (3.6)	9 (3.1)	15 (4.3)	1 (4.8)	36 (3.4)	22 (2.6)	58 (3.0)
무응답	3 (1.1)	3 (1.3)	3 (1.0)	1 (0.8)	2 (1.7)	3 (1.4)	4 (1.4)	12 (3.5)	-	15 (1.4)	16 (1.9)	31 (1.6)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8) 가족수

본인을 포함한 학생의 가족수를 알아본 결과, '4인 가족'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 41.2%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인 가족'이 27.3%로서 전년도 29.3%에 비해 낮고, '6인 가족' 11.9%, '3인 가족'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7인~9인이상 가족을 볼 때, 아직까지 대가족의 경우도 6.7%나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비해 조금 감소(7.7%→6.7%)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 혼자인 경우는 0.2%(4명), '2인 가족'(학생과 부, 또는 모만 동거)도 1.1%(21명)가 된다.

(표 10) 가족수(본인 포함)

(단위 : 명(%))

구분 가족수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1명	1 (0.4)	3 (1.3)	-	-	-	-	-	-	-	1 (0.1)	3 (0.3)	4 (0.2)
2명	-	4 (1.8)	3 (1.0)	2 (1.6)	2 (1.7)	4 (1.8)	5 (1.7)	1 (0.3)	-	18 (1.7)	3 (0.3)	21 (1.1)
3명	13 (4.9)	22 (9.6)	38 (12.2)	17 (13.7)	7 (5.8)	23 (10.5)	19 (6.5)	18 (5.2)	1 (4.8)	100 (9.3)	58 (6.8)	158 (8.2)
4명	113 (43.0)	77 (33.8)	137 (43.9)	52 (41.9)	60 (49.6)	92 (41.8)	137 (46.8)	174 (50.1)	13 (61.9)	545 (50.9)	310 (36.1)	855 (44.3)
5명	79 (30.0)	71 (31.1)	83 (26.6)	32 (25.8)	33 (27.3)	61 (27.7)	69 (23.5)	95 (27.4)	4 (19.0)	253 (23.6)	274 (31.9)	527 (27.3)
6명	36 (13.7)	33 (14.5)	34 (10.9)	13 (10.5)	10 (8.3)	25 (11.4)	43 (14.7)	34 (9.8)	1 (4.8)	91 (8.5)	138 (16.1)	229 (11.9)
7명	11 (4.2)	14 (6.1)	11 (3.5)	6 (4.8)	5 (4.1)	11 (5.0)	15 (5.1)	13 (3.7)	1 (4.8)	39 (3.6)	48 (5.6)	87 (4.5)
8명	6 (2.3)	2 (0.9)	4 (1.3)	1 (0.8)	4 (3.3)	3 (1.4)	1 (0.3)	9 (2.6)	-	16 (1.5)	14 (1.6)	30 (1.6)
9명이상	3 (1.1)	1 (0.4)	1 (0.3)	1 (0.8)	-	-	2 (0.7)	3 (0.9)	1 (4.8)	5 (0.5)	7 (0.8)	12 (0.6)
무응답	1 (0.4)	1 (0.4)	1 (0.3)	-	-	1 (0.5)	2 (0.7)	-	-	3 (0.3)	3 (0.3)	6 (0.3)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9) 가족의 월수입

가정의 월수입을 보면, '181만원이상' 31.8%로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고, '101~120만원' 12.3%, '121~140만원' 10.1%, '81~100만원' 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이 '80만원이하'인 가족도 7.0%나 된다. 이러한 경향을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해 보면, 80만원이하가 7.5%→7.0%로 0.5% 감소하였고, 100만원이상인 경우가 66.5%→84.4%로 17.9%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가족의 월수입

〈단위 : 명(%)〉

구분 월수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20만원이하	1 (0.4)	2 (0.9)	7 (2.2)	-	3 (2.5)	4 (1.8)	3 (1.0)	11 (3.2)	-	24 (2.2)	7 (0.8)	31 (1.6)
21~40만원	1 (0.4)	5 (2.2)	1 (0.3)	2 (1.6)	1 (0.8)	1 (0.5)	1 (0.3)	2 (0.6)	-	10 (0.9)	4 (0.5)	14 (0.7)
41~60만원	3 (1.1)	2 (0.9)	3 (1.0)	3 (2.4)	5 (4.1)	3 (1.4)	5 (1.7)	7 (2.0)	2 (9.5)	16 (1.5)	17 (2.0)	33 (1.7)
61~80만원	6 (2.3)	7 (3.1)	7 (2.2)	1 (0.8)	3 (2.5)	10 (4.5)	12 (4.1)	10 (2.9)	1 (4.8)	35 (3.3)	22 (2.6)	57 (3.0)
81~100만원	9 (3.4)	14 (6.1)	26 (8.3)	11 (8.9)	13 (10.7)	30 (13.6)	27 (9.2)	35 (10.1)	1 (4.8)	무응답 (9.2)	67 (7.8)	166 (8.6)
101~120만원	39 (14.8)	27 (11.8)	39 (12.5)	18 (14.5)	6 (5.0)	32 (14.5)	25 (8.5)	52 (15.0)	-	141 (13.2)	97 (11.3)	238 (12.3)
121~140만원	19 (7.2)	31 (13.6)	24 (7.7)	17 (13.7)	8 (6.6)	23 (10.5)	31 (10.6)	40 (11.5)	1 (4.8)	123 (11.5)	71 (8.3)	194 (10.1)
141~160만원	17 (6.5)	19 (8.3)	28 (9.0)	14 (11.3)	16 (13.2)	18 (8.2)	19 (6.5)	22 (6.3)	5 (23.8)	91 (8.5)	67 (7.8)	158 (8.2)
161~180만원	30 (11.4)	24 (10.5)	23 (7.4)	8 (6.5)	9 (7.4)	11 (5.0)	18 (6.1)	20 (5.8)	2 (9.5)	77 (7.2)	68 (7.9)	145 (7.5)
181만원이상	92 (35.0)	59 (25.9)	118 (37.8)	34 (27.4)	40 (33.1)	64 (29.1)	108 (36.9)	93 (26.8)	5 (23.8)	355 (33.1)	258 (30.1)	613 (31.8)
무 응 답	46 (17.5)	38 (16.7)	36 (11.5)	16 (12.9)	17 (14.0)	24 (10.9)	44 (15.0)	55 (15.9)	4 (19.0)	100 (9.3)	180 (21.0)	280 (14.5)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0) 가정분위기

학생의 가정분위기를 보면, '화목하다'는 반응이 86.0%, '불화가 있다'는 반응에도 13.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화목하다'(61.1%→86.0%)는 학생은 매우 증가하였고, '불화가 있다'

(12.0%→13.5%)는 학생은 조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2〉 가정분위기

〈단위 : 명(%)〉

구분 가정분위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불 화 가 심 하 다	4 (1.5)	4 (1.8)	6 (1.9)	1 (0.8)	4 (3.3)	4 (1.8)	4 (1.4)	7 (2.0)	-	26 (2.4)	8 (0.9)	34 (1.8)
약간 불화가 있 다	26 (9.9)	34 (14.9)	28 (9.0)	12 (9.7)	12 (9.9)	31 (14.1)	39 (13.3)	42 (12.1)	2 (9.5)	159 (14.8)	67 (7.8)	226 (11.7)
비 교 적 화 목 하 다	138 (52.5)	127 (55.7)	184 (59.0)	74 (59.7)	62 (51.2)	136 (61.8)	161 (54.9)	215 (62.0)	15 (71.4)	620 (57.9)	492 (57.3)	1112 (57.6)
매 우 화 목 하 다	94 (35.7)	60 (26.3)	92 (29.5)	36 (29.0)	43 (35.5)	49 (22.3)	87 (29.7)	83 (23.9)	4 (19.0)	262 (24.5)	286 (33.3)	548 (28.4)
무 응 답	1 (0.4)	3 (1.3)	2 (0.6)	1 (0.8)	-	-	2 (0.7)	-	-	4 (0.4)	5 (0.6)	9 (0.5)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1)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표 13〉과 같이 알아본 결과, '만족하다'는 반응이 79.7%이고, '그저 그렇다' 15.0%, '불만족스럽다' 4.5%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만족스럽다'에 여학생이 84.6%로 남학생의 75.9%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여학생(80.8%→84.6%)은 증가하였고, 남학생(77.7%→75.9%)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

〈단위 : 명(%)〉

구분 느낌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만족	78 (29.7)	56 (24.6)	83 (26.6)	32 (25.8)	39 (32.2)	42 (19.1)	78 (26.6)	76 (21.9)	4 (19.0)	262 (24.5)	226 (26.3)	488 (25.3)
만 족	144 (54.8)	120 (52.6)	167 (53.5)	77 (62.1)	55 (45.5)	124 (56.4)	160 (54.6)	189 (54.5)	14 (66.7)	550 (51.4)	500 (58.3)	1050 (54.4)

느낌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그저 그렇다		31 (11.8)	34 (14.9)	42 (13.5)	10 (8.1)	20 (16.5)	43 (19.5)	37 (12.6)	69 (19.9)	3 (14.3)	194 (18.1)	95 (11.1)	289 (15.0)
불만족		6 (2.3)	13 (5.7)	8 (2.6)	2 (1.6)	3 (2.5)	5 (2.3)	10 (3.4)	10 (2.9)	-	38 (3.5)	19 (2.2)	57 (3.0)
매우 불만		2 (0.8)	3 (1.3)	6 (1.9)	3 (2.4)	4 (3.3)	3 (1.4)	5 (1.7)	3 (0.9)	-	19 (1.8)	10 (1.2)	29 (1.5)
무응답		2 (0.8)	2 (0.9)	6 (1.9)	-	-	3 (1.4)	3 (1.0)	-	-	8 (0.7)	8 (0.9)	16 (0.8)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2)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학생은 부모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반응이 74.1%, '보통이다'가 21.8%, '관심이 적거나, 전혀 없다'에 3.6%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관심이 크다'에 남학생은 75.5%이나 여학생은 72.5%로 나타나 11)의 '부모에 대한 학생의 느낌'과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4〉 학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단위 : 명(%)〉

부모의 관심도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관심이 큼		135 (51.3)	95 (41.7)	142 (45.5)	54 (43.5)	57 (47.1)	75 (34.1)	143 (48.8)	127 (36.6)	14 (66.7)	441 (41.2)	401 (46.7)	842 (43.6)
약간 관심 있음		72 (27.4)	70 (30.7)	97 (31.1)	40 (32.3)	33 (27.3)	77 (35.0)	69 (23.5)	128 (36.9)	2 (9.5)	367 (34.3)	221 (25.8)	588 (30.5)
보 통		48 (18.3)	48 (21.1)	58 (18.6)	26 (21.0)	26 (21.5)	62 (28.2)	68 (23.2)	80 (23.1)	4 (19.0)	214 (20.0)	206 (24.0)	420 (21.8)
관심 적음		4 (1.5)	9 (3.9)	7 (2.2)	4 (3.2)	2 (1.7)	4 (1.8)	9 (3.1)	10 (2.9)	1 (4.8)	32 (3.0)	18 (2.1)	50 (2.6)
전혀 관심 없		2 (0.8)	4 (1.8)	5 (1.6)	-	2 (1.7)	2 (0.9)	2 (0.7)	2 (0.6)	-	13 (1.2)	6 (0.7)	19 (1.0)

구분 부모의 관심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 응 답	2 (0.8)	2 (0.9)	3 (1.0)	-	1 (0.8)	-	2 (0.7)	-	-	4 (0.4)	6 (0.7)	10 (0.5)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3) 재학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학생이 재학중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에서,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경우가 89.0%로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도 신입생의 학비조달 방법을 물어본 응답에서 88.9%를 보여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본인이 부담'하거나, '교내·외 장학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경우가 9.9%(전년도 9.2% 보다 0.7% 높음)로 나타났고, 그 외 '친척', '형제',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0.9%(전년도 1.4% 보다 0.5% 낮음)로 매우 낮게 반응하였다. 비록 국립대학으로서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지만, 아직도 학생 스스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학생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재학중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구분 부담할사람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본 인	10 (3.8)	28 (12.3)	31 (9.9)	6 (4.8)	10 (8.3)	15 (6.8)	15 (5.1)	22 (6.3)	-	78 (7.3)	59 (6.9)	137 (7.1)
보 호 자	238 (90.5)	191 (83.8)	274 (87.8)	108 (87.1)	110 (90.9)	194 (88.2)	263 (89.8)	317 (91.4)	21 (100.0)	958 (89.4)	758 (88.3)	1716 (89.0)
친 척	-	-	-	3 (2.4)	-	-	-	-	-	1 (0.1)	2 (0.2)	3 (0.2)
형 제	1 (0.4)	1 (0.4)	-	3 (2.4)	-	-	2 (0.7)	-	-	4 (0.4)	3 (0.3)	7 (0.4)
조 부 모	-	1 (0.4)	-	-	-	1 (0.5)	1 (0.3)	3 (0.9)	-	5 (0.5)	1 (0.1)	6 (0.3)
교내장학금	11 (4.2)	5 (2.2)	2 (0.6)	4 (3.2)	1 (0.8)	9 (4.1)	9 (3.1)	4 (1.2)	-	17 (1.6)	28 (3.3)	45 (2.3)
교외장학금	2 (0.8)	1 (0.4)	4 (1.3)	-	-	1 (0.5)	2 (0.7)	-	-	5 (0.5)	5 (0.6)	10 (0.5)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응답	1 (0.4)	1 (0.4)	1 (0.3)	-	-	-	1 (0.3)	1 (0.3)	-	3 (0.3)	2 (0.2)	5 (0.3)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4) 장학금의 필요여부와 이유

장학금이 필요여부와 이유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록금 충당을 위해서'가 41.3%(전년도 43.9%에 비해 다소 감소)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36.2%(전년도 36.5%), '생활비 충당을 위해' 11.7%(전년도 10.3%에 비해 증가), '장학금이 필요 없다'가 9.1%(전년도 7.0%)로 나타나고 있어 재학중 학생들의 장학금이 필요 이유가 주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등록금 보다는 생활비 충당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장학금이 필요여부와 이유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필요 없다	20 (7.6)	22 (9.6)	25 (8.0)	15 (12.1)	12 (9.9)	11 (5.0)	36 (12.3)	33 (9.5)	2 (9.5)	101 (9.4)	75 (8.7)	176 (9.1)
등록금과 생활비 충당	86 (32.7)	64 (28.1)	116 (37.2)	45 (36.3)	45 (37.2)	108 (49.1)	98 (33.4)	132 (38.0)	5 (23.8)	429 (40.1)	270 (31.5)	699 (36.2)
생활비 충당	27 (10.3)	32 (14.0)	38 (12.2)	9 (7.3)	20 (16.5)	28 (12.7)	34 (11.6)	33 (9.5)	4 (19.0)	161 (15.0)	64 (7.5)	225 (11.7)
등록금 충당	124 (47.1)	105 (46.1)	127 (40.7)	52 (41.9)	41 (33.9)	70 (31.8)	121 (41.3)	146 (42.1)	10 (47.6)	371 (34.6)	425 (49.5)	796 (41.3)
무응답	6 (2.3)	5 (2.2)	6 (1.9)	3 (2.4)	3 (2.5)	3 (1.4)	4 (1.4)	3 (0.9)	-	9 (0.8)	24 (2.8)	33 (1.7)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5)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 욕구정도

학생이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정도를 보면, '원한다'가 70.7%(전년도 70.4% 비해

다소 증가), '절실히 원한다'가 14.6%(전년도 18.0% 보다 적게 나타남)로 재학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이 85.3%로 전년도 88.4%에 비해 보다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대학별로 비교해 보면, 해양대 90.0%, 농과대 89.2%, 자연대 88.7%의 순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86.1%, 남학생이 84.6%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7〉 대학생생활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정도

〈단위 : 명(%)〉

구분 부직희망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절 실 히 원 한 다	46 (17.5)	32 (14.0)	50 (16.0)	11 (8.9)	20 (16.5)	42 (19.1)	44 (15.0)	36 (10.4)	-	165 (15.4)	116 (13.5)	281 (14.6)
원 한 다	181 (68.8)	155 (68.0)	216 (69.2)	90 (72.6)	88 (72.7)	156 (70.9)	216 (73.7)	244 (70.3)	18 (85.7)	741 (69.2)	623 (72.6)	1364 (70.7)
별 로 관심없다	26 (9.9)	25 (11.0)	31 (9.9)	19 (15.3)	10 (8.3)	21 (9.5)	27 (9.2)	55 (15.9)	3 (14.3)	132 (12.3)	85 (9.9)	217 (11.2)
생각한 적 없	8 (3.0)	13 (5.7)	13 (4.2)	4 (3.2)	2 (1.7)	1 (0.5)	5 (1.7)	12 (3.5)	-	30 (2.8)	28 (3.3)	58 (3.0)
무 응 답	2 (0.8)	3 (1.3)	2 (0.6)	-	1 (0.8)	-	1 (0.3)	-	-	3 (0.3)	6 (0.7)	9 (0.5)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6)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용돈 마련'이 61.7%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학비 마련'으로 17.0%, '폭 넓은 사회생활' 1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1.0%(20명)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및 남녀별로도 93%~95% 범위내(의과대 85.7%)에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폭 넓은 사회생활' (14.0%→16.5%)이나 '학비 마련' (15.8%→17.0%)은 증가한 반면, '용돈 마련' (65.0%→61.7%)에 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희망이유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폭 넓은 사회생활	47 (17.9)	44 (19.3)	60 (19.2)	14 (11.3)	22 (18.2)	39 (17.7)	33 (11.3)	57 (16.4)	2 (9.5)	196 (18.3)	122 (14.2)	318 (16.5)
용돈 마련	161 (61.2)	138 (60.5)	184 (59.0)	84 (67.7)	67 (55.4)	140 (63.6)	193 (65.9)	208 (59.9)	15 (71.4)	647 (60.4)	543 (63.3)	1190 (61.7)
학비 마련	41 (15.6)	31 (13.6)	52 (16.7)	22 (17.7)	28 (23.1)	32 (14.5)	50 (17.1)	70 (20.2)	1 (4.8)	176 (16.4)	151 (17.6)	327 (17.0)
가족의 생계유지	2 (0.8)	7 (3.1)	4 (1.3)	3 (2.4)	-	2 (0.9)	1 (0.3)	1 (0.3)	-	13 (1.2)	7 (0.8)	20 (1.0)
무응답	12 (4.6)	8 (3.5)	12 (3.8)	1 (0.8)	4 (3.3)	7 (3.2)	16 (5.5)	11 (3.2)	3 (14.3)	39 (3.6)	35 (4.1)	74 (3.8)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7) 대학 진학의 목적

대학 진학의 목적을 보면,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34.3%로 전년도 30.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25.0%(전년도 28.1%), '자신이 소질개발을 위해서'가 20.6%(전년도 22.9%)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하면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주위의 권유 때문에', '교양습득을 위해서',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 등의 목적에도 19.6%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17.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9〉 대학 진학의 목적

(단위 : 명(%))

구분 진학목적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	86 (32.7)	70 (30.7)	146 (46.8)	52 (41.9)	19 (15.7)	72 (32.7)	104 (35.5)	106 (30.5)	6 (28.6)	401 (37.4)	260 (30.3)	661 (34.3)
교양습득을 위해	11 (4.2)	20 (8.8)	10 (3.2)	8 (6.5)	13 (10.7)	12 (5.5)	5 (1.7)	13 (3.7)	-	52 (4.9)	40 (4.7)	92 (4.8)
주위의 권유	14 (5.3)	17 (7.5)	6 (1.9)	11 (8.9)	14 (11.6)	24 (10.9)	10 (3.4)	26 (7.5)	1 (4.8)	64 (6.0)	59 (6.9)	123 (6.4)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	5 (1.9)	7 (3.1)	2 (0.6)	1 (0.8)	6 (5.0)	5 (2.3)	5 (1.7)	5 (1.4)	-	21 (2.0)	15 (1.7)	36 (1.9)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15 (5.7)	26 (11.4)	15 (4.8)	9 (7.3)	11 (9.1)	13 (5.9)	17 (5.8)	18 (5.2)	1 (4.8)	73 (6.8)	52 (6.1)	125 (6.5)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65 (24.7)	38 (16.7)	60 (19.2)	22 (17.7)	23 (19.0)	39 (17.7)	66 (22.5)	82 (23.6)	3 (14.3)	200 (18.7)	198 (23.1)	398 (20.6)

구분 진학목적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66 (25.1)	47 (20.6)	70 (22.4)	21 (16.9)	33 (27.3)	54 (24.5)	85 (29.0)	97 (28.0)	10 (47.6)	253 (23.6)	230 (26.8)	483 (25.0)
무 응 답	1 (0.4)	3 (1.3)	3 (1.0)	-	2 (1.7)	1 (0.5)	1 (0.3)	-	-	7 (0.7)	4 (0.5)	11 (0.6)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8) 대학생활중 가장 하고 싶은 일

학생이 입학 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보면, '전공공부' 31.1%(전년도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폭 넓은 친구교제' 27.5%(전년도 28.4%), '자격시험 준비' 12.8%(전년도 15.2%), '사회활동 참여' 10.4%(전년도 7.5%), '이성교제' 8.1%(전년도 7.2%), '동아리활동' 6.7%(전년도 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은 0.9%(전년도 0.7%)로 나타나 아직까지 대학생활에서 봉사활동의 의미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도 신입생에 비해 '전공공부', '사회활동 참여', '이성교제', '봉사활동'에 관심이 높은 반면에, '폭넓은 친구교제', '자격시험 준비', '동아리활동' 등에는 다소 관심을 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0〉 대학생활중 가장 하고 싶은 것

(단위 : 명%)

구분 하고 싶은 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폭 넓은 친구교제	67 (25.5)	46 (20.2)	91 (29.2)	35 (28.2)	48 (39.7)	57 (25.9)	79 (27.0)	98 (28.2)	9 (42.9)	322 (30.1)	208 (24.2)	530 (27.5)
이성교제	5 (1.9)	22 (9.6)	16 (5.1)	9 (7.3)	14 (11.6)	30 (13.6)	21 (7.2)	39 (11.2)	-	126 (11.8)	30 (3.5)	156 (8.1)
동아리활동	15 (5.7)	16 (7.0)	16 (5.1)	8 (6.5)	5 (4.1)	17 (7.7)	28 (9.6)	25 (7.2)	-	79 (7.4)	51 (5.9)	130 (6.7)
교양서적 독	7 (2.7)	7 (3.1)	-	6 (4.8)	3 (2.5)	2 (0.9)	3 (1.0)	4 (1.2)	-	18 (1.7)	14 (1.6)	32 (1.7)
자격시험 준비	28 (10.6)	47 (20.6)	38 (12.2)	15 (12.1)	11 (9.1)	28 (12.7)	38 (13.0)	41 (11.8)	-	146 (13.6)	100 (11.7)	246 (12.8)
사회활동 참여	26 (9.9)	23 (10.1)	39 (12.5)	8 (6.5)	17 (14.0)	28 (12.7)	24 (8.2)	32 (9.2)	3 (14.3)	96 (9.0)	104 (12.1)	200 (10.4)
전공공부	109 (41.4)	62 (27.2)	108 (34.6)	37 (29.8)	20 (16.5)	55 (25.0)	98 (33.4)	103 (29.7)	8 (38.1)	263 (24.6)	337 (39.3)	600 (31.1)
봉사활동	2 (0.8)	2 (0.9)	2 (0.6)	3 (2.4)	3 (2.5)	1 (0.5)	1 (0.3)	3 (0.9)	-	10 (0.9)	7 (0.8)	17 (0.9)

구분 하고 싶은 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 응 답	4 (1.5)	3 (1.3)	2 (0.6)	3 (2.4)	-	2 (0.9)	1 (0.3)	2 (0.6)	1 (4.8)	11 (1.0)	7 (0.8)	17 (0.9)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19)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분야

학생이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분야를 보면, '취미분야'가 51.9%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이는 전년도 51.5%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스포츠분야'로 19.6%로서 전년도와 같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양·학술분야' 7.1%(전년도 8.3%), '봉사분야' 4.0%(전년도 5.3%)로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고 싶지 않다'고 반응한 학생도 10.2%로 전년도 9.6%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분야

(단위 : 명(%))

구분 희망동아리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양·학술 분야	19 (7.2)	27 (11.8)	24 (7.7)	9 (7.3)	9 (7.4)	11 (5.0)	22 (7.5)	14 (4.0)	1 (4.8)	65 (6.1)	71 (8.3)	136 (7.1)
스포츠분야	30 (11.4)	42 (18.4)	68 (21.8)	27 (21.8)	25 (20.7)	48 (21.8)	61 (20.8)	76 (21.9)	2 (9.5)	307 (28.7)	72 (8.4)	379 (19.6)
취미분야	139 (52.9)	116 (50.9)	162 (51.9)	53 (42.7)	65 (53.7)	122 (55.5)	151 (51.5)	183 (52.7)	11 (52.4)	504 (47.1)	498 (58.0)	1002 (51.9)
종교분야	13 (4.9)	4 (1.8)	6 (1.9)	2 (1.6)	2 (1.7)	2 (0.9)	5 (1.7)	6 (1.7)	1 (4.8)	25 (2.3)	16 (1.9)	41 (2.1)
지역 및 사회 문제 분야	6 (2.3)	8 (3.5)	4 (1.3)	4 (3.2)	1 (0.8)	2 (0.9)	2 (0.7)	4 (1.2)	-	15 (1.4)	16 (1.9)	31 (1.6)
봉사분야	7 (2.7)	8 (3.5)	8 (2.6)	6 (4.8)	7 (5.8)	10 (4.5)	16 (5.5)	12 (3.5)	4 (19.0)	28 (2.6)	50 (5.8)	78 (4.0)
체육분야	6 (2.3)	6 (2.6)	5 (1.6)	1 (0.8)	1 (0.8)	5 (2.3)	6 (2.0)	17 (4.9)	-	37 (3.5)	10 (1.2)	47 (2.4)
하고 싶지 않다	38 (14.4)	16 (7.0)	33 (10.6)	22 (17.7)	11 (9.1)	16 (7.3)	26 (8.9)	34 (9.8)	1 (4.8)	85 (7.9)	112 (13.1)	197 (10.2)
무 응 답	5 (1.9)	1 (0.4)	2 (0.6)	-	-	4 (1.8)	4 (1.4)	1 (0.3)	1 (4.8)	5 (0.5)	13 (1.5)	18 (0.9)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0)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점

학생이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면, '학교 공부' 35.0%(전년도 3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간 및 생활관리' 33.1%(전년도 34.3%)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관계' 13.7%(전년도 13.0%), '학자금 조달' 8.6%, '숙식' 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입학 후에도 마찬가지로 '공부 및 시간관리'를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시간 및 생활관리', '학자금 조달', '숙식' 및 '이성교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학교공부'와 '인간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점

〈단위 : 명(%)〉

구분 걱정거리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자금조달 문 제	17 (6.5)	22 (9.6)	29 (9.3)	7 (5.6)	5 (4.1)	22 (10.0)	27 (9.2)	35 (10.1)	1 (4.8)	95 (8.9)	70 (8.2)	165 (8.6)
숙 식 문 제	10 (3.8)	11 (4.8)	24 (7.7)	11 (8.9)	8 (6.6)	9 (4.1)	17 (5.8)	7 (2.0)	3 (14.3)	74 (6.9)	26 (3.0)	100 (5.2)
학 교 공 부 문 제	100 (38.0)	83 (36.4)	90 (28.8)	56 (45.2)	45 (37.2)	87 (39.5)	95 (32.4)	112 (32.3)	7 (33.3)	330 (30.8)	345 (40.2)	675 (35.0)
시 간 및 생 활 관 리 문 제	96 (36.5)	70 (30.7)	110 (35.3)	24 (19.4)	34 (28.1)	62 (28.2)	108 (36.9)	130 (37.5)	5 (23.8)	377 (35.2)	262 (30.5)	639 (33.1)
이 성 교 제 문 제	3 (1.1)	8 (3.5)	8 (2.6)	5 (4.0)	8 (6.6)	12 (5.5)	8 (2.7)	14 (4.0)	1 (4.8)	52 (4.9)	15 (1.7)	67 (3.5)
인 간 관 계 문 제	36 (13.7)	32 (14.0)	49 (15.7)	17 (13.7)	20 (16.5)	28 (12.7)	35 (11.9)	44 (12.7)	4 (19.0)	135 (12.6)	130 (15.2)	265 (13.7)
무 응 답	1 (0.4)	2 (0.9)	2 (0.6)	4 (3.2)	1 (0.8)	-	3 (1.0)	5 (1.4)	-	8 (0.7)	10 (1.2)	18 (0.9)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1) 본교에 대한 이미지

'제주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아름다운 캠퍼스' 44.0%,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분위기' 22.9%, '장학금 혜택' 13.7%, '학구적인 분위기' 6.3%, '좋은 학교시설' 5.9%, '우수한 교수진' 1.5%의 순으로 전년도 신입생과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를 남녀별로 보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분위기', '학구적인 분위기', '좋은 학교시설', '우수한 교수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반응을, '아름다운 캠퍼스',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게 응답하고 있다.

〈표 23〉 본교에 대한 이미지

〈단위 : 명(%)〉

구분 이미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구적인 분위	17 (6.5)	20 (8.8)	23 (7.4)	9 (7.3)	4 (3.3)	12 (5.5)	13 (4.4)	24 (6.9)	-	75 (7.0)	47 (5.5)	122 (6.3)
우수한 교수진	3 (1.1)	5 (2.2)	3 (1.0)	7 (5.6)	3 (2.5)	2 (0.9)	2 (0.7)	4 (1.2)	-	19 (1.8)	10 (1.2)	29 (1.5)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분위	57 (21.7)	52 (22.8)	81 (26.0)	34 (27.4)	37 (30.6)	30 (13.6)	68 (23.2)	76 (21.9)	7 (33.3)	260 (24.3)	182 (21.2)	442 (22.9)
아름다운 캠퍼스	121 (46.0)	103 (45.2)	138 (44.2)	47 (37.9)	49 (40.5)	100 (45.5)	146 (49.8)	135 (38.9)	9 (42.9)	451 (42.1)	397 (46.3)	848 (44.0)
좋은 학교 시설	10 (3.8)	8 (3.5)	15 (4.8)	3 (2.4)	9 (7.4)	21 (9.5)	15 (5.1)	33 (9.5)	-	75 (7.0)	39 (4.5)	114 (5.9)
장학 금 혜택	48 (18.3)	30 (13.2)	35 (11.2)	14 (11.3)	13 (10.7)	44 (20.0)	32 (10.9)	45 (13.0)	3 (14.3)	137 (12.8)	127 (14.8)	264 (13.7)
무 응 답	7 (2.7)	10 (4.4)	17 (5.4)	10 (8.1)	6 (5.0)	11 (5.0)	17 (5.8)	30 (8.6)	2 (9.5)	54 (5.0)	56 (6.5)	110 (5.7)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2) 본교에 대한 인지도

본교를 지원할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대강 알고 지원'한 경우가 58.8%(전년도 56.9%)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고 지원'한 경우는 28.4%(전년도 33.0%), '충분히 알고 지원'한 경우가 6.1%(전년도 4.6%), '전혀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6.0%(전년도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하면 '대강 알거나, 충분히 알고 지원'한 학생은 64.9%(전년도 59.6%)로 증가하였고,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지원'한 경우가 34.4%(전년도 38.1%)로 감소한 현상은 결국 모르고 지원한 신입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남녀별로 보면, '충분히 알고 지원'하거나, '전혀 모르고 지원'한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반응하는 반면에, '대강 알거나, 잘 모르고 지원'한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 본교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혀 모르고 지원	10 (3.8)	20 (8.8)	19 (6.1)	6 (4.8)	14 (11.6)	8 (3.6)	13 (4.4)	24 (6.9)	1 (4.8)	83 (7.7)	32 (3.7)	115 (6.0)

구분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잘 모르고 지 원	73 (27.8)	57 (25.0)	97 (31.1)	43 (34.7)	34 (28.1)	56 (25.5)	81 (27.6)	102 (29.4)	5 (23.8)	285 (26.6)	263 (30.7)	548 (28.4)
대강 알고 지 원	155 (58.9)	132 (57.9)	173 (55.4)	65 (52.4)	66 (54.5)	142 (64.5)	185 (63.1)	204 (58.8)	13 (61.9)	619 (57.8)	516 (60.1)	1135 (58.8)
충분히 알고 지 원	22 (8.4)	19 (8.3)	18 (5.8)	8 (6.5)	5 (4.1)	14 (6.4)	13 (4.4)	17 (4.9)	2 (9.5)	78 (7.3)	40 (4.7)	118 (6.1)
무 응 답	3 (1.1)	-	5 (1.6)	2 (1.6)	2 (1.7)	-	1 (0.3)	-	-	6 (0.6)	7 (0.8)	13 (0.7)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3) 본교를 지원한 이유

본교를 지원한 주된 이유는 '지역적인 면' 42.3%(전년도 40.6%), '합격 가능성' 31.6%(전년도 35.6%), '경제적인 면' 16.6%(전년도 17.5%), '취업 가능성' 8.8%(전년도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합격과 취업 가능성'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각각 4.1%, 1.6%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지역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각각 4%, 1.3%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25〉 본교를 지원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고려요인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지역적인 면	121 (46.0)	124 (54.4)	134 (42.9)	56 (45.2)	39 (32.2)	89 (40.5)	111 (37.9)	133 (38.3)	9 (42.9)	434 (40.5)	382 (44.5)	816 (42.3)
경제적인 면	40 (15.2)	38 (16.7)	31 (9.9)	30 (24.2)	20 (16.5)	47 (21.4)	43 (14.7)	70 (20.2)	2 (9.5)	172 (16.1)	149 (17.4)	321 (16.6)
합격가능성	89 (33.8)	60 (26.3)	81 (26.0)	28 (22.6)	50 (41.3)	65 (29.5)	112 (38.2)	119 (34.3)	5 (23.8)	358 (33.4)	251 (29.3)	609 (31.6)
취업가능성	9 (3.4)	6 (2.6)	64 (20.5)	10 (8.1)	11 (9.1)	19 (8.6)	26 (8.9)	21 (6.1)	4 (19.0)	102 (9.5)	68 (7.9)	170 (8.8)
무 응 답	4 (1.5)	-	2 (0.6)	-	1 (0.8)	-	1 (0.3)	4 (1.2)	1 (4.8)	5 (0.5)	8 (0.9)	13 (0.7)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4) 본교 지원시 정보의 수집경로

본교 지원시 정보의 수집경로를 보면, '친구·선배'에게서 31.1%(전년도 30.8%)로 가장 많고, '가족·친척' 20.9%(전년도 20.5%), '교사' 14.7%(전년도 12.0%), '본교 안내 책자' 12.8%(전년도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매스컴', '입시학원 자료' 및 '고교생 초청 대학설명회' 등 12.9%(전년도 11.2%)의 수집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정보의 수집경로는 '친구·선배', '가족·친척', '교사', '매스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스컴' 등의 경로에 의한 수집방법이 전년도 신입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입시학원 자료'(5.5%→5.2%), '고교생 초청 대학설명회'의 경로(1.5%→1.2%)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6〉 본교 지원시 정보의 수집경로

(단위 : 명(%))

구분 수집경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가족, 친척	60 (22.8)	53 (23.2)	56 (17.9)	24 (19.4)	33 (27.3)	50 (22.7)	64 (21.8)	59 (17.0)	5 (23.8)	213 (19.9)	191 (22.3)	404 (20.9)
친구, 선배	84 (31.9)	71 (31.1)	88 (28.2)	41 (33.1)	22 (18.2)	70 (31.8)	무응답 (33.8)	120 (34.6)	5 (23.8)	344 (32.1)	256 (29.8)	600 (31.1)
교 사	39 (14.8)	31 (13.6)	44 (14.1)	18 (14.5)	28 (23.1)	32 (14.5)	36 (12.3)	55 (15.9)	1 (4.8)	169 (15.8)	115 (13.4)	284 (14.7)
매 스 콤	17 (6.5)	14 (6.1)	28 (9.0)	3 (2.4)	11 (9.1)	12 (5.5)	21 (7.2)	17 (4.9)	2 (9.5)	68 (6.3)	57 (6.6)	125 (6.5)
제주대학교 안내 책자	33 (12.5)	26 (11.4)	54 (17.3)	18 (14.5)	14 (11.6)	28 (12.7)	31 (10.6)	39 (11.2)	4 (19.0)	117 (10.9)	130 (15.2)	247 (12.8)
고교생초청 대학설명회	4 (1.5)	6 (2.6)	1 (0.3)	5 (4.0)	2 (1.7)	1 (0.5)	1 (0.3)	4 (1.2)	-	12 (1.1)	12 (1.4)	24 (1.2)
입 시 학 원 자 료	14 (5.3)	8 (3.5)	13 (4.2)	8 (6.5)	2 (1.7)	9 (4.1)	18 (6.1)	26 (7.5)	2 (9.5)	61 (5.7)	39 (4.5)	100 (5.2)
전혀 정보 없	8 (3.0)	17 (7.5)	25 (8.0)	7 (5.6)	9 (7.4)	17 (7.7)	21 (7.2)	26 (7.5)	1 (4.8)	80 (7.5)	51 (5.9)	131 (6.8)
무 응 답	4 (1.5)	2 (0.9)	3 (1.0)	-	-	1 (0.5)	2 (0.7)	1 (0.3)	1 (4.8)	7 (0.7)	7 (0.8)	14 (0.7)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5) 본교에 입학후 자긍심의 정도

본교에 입학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보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69.2%(전년도 73.1%)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랑스럽다'는 반응에는 27.0%(전년도 23.2%) 정도이다. 그리고 '부끄럽다'는 학생도 3.4%(전년도 3.2%)나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남녀별로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자랑스럽다'에는 여학생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자랑스럽다'는 자긍심은 매해 증가('00학년도→19.4%, '01학년도→23.2%, '02학년도→27.0%)함을 알 수 있었다.

〈표 27〉 본교에 입학후 자긍심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자긍심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자랑스럽다	61 (23.2)	62 (27.2)	106 (34.0)	39 (31.5)	34 (28.1)	60 (27.3)	87 (29.7)	67 (19.3)	4 (19.0)	285 (26.6)	235 (27.4)	520 (27.0)
그저그렇다	190 (72.2)	157 (68.9)	193 (61.9)	83 (66.9)	80 (66.1)	152 (69.1)	201 (68.6)	261 (75.2)	17 (81.0)	741 (69.2)	593 (69.1)	1334 (69.2)
부끄럽다	11 (4.2)	6 (2.6)	11 (3.5)	1 (0.8)	7 (5.8)	7 (3.2)	5 (1.7)	18 (5.2)	-	39 (3.6)	27 (3.1)	66 (3.4)
무응답	1 (0.4)	3 (1.3)	2 (0.6)	1 (0.8)	-	1 (0.5)	-	1 (0.3)	-	6 (0.6)	3 (0.3)	9 (0.5)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6) 학부(과)에 지망하게 된 과정

학생이 입학한 학부(과)에 지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가 42.9%(전년도 44.9%)로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났고, 다음이 '가장 원하던 분야'에 28.5%(전년도 29.4%), '전혀 원하지 않던 분야로 성적이 모자라서'가 17.3%(전년도 15.6%),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이긴 하지만 주위의 압력 때문'에 7.6%(전년도 7.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신입생이 입학한 학부(과)를 선택한 과정중 79.0%(전년도 81.7%)의 대부분의 학생이 원하던 분야에 지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신입생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혀 원하지 않던 분야에 성적이나, 주위의 압력으로 지망하게 된 학생도 20.2%(전년도 17.8%)가 되어 입학후 전공분야에서 학업동기가 떨어져 대학생활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된다.

〈표 28〉 학부(과)에 지망하게 된 과정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지망동기												
가장 원하던 분야	89 (33.8)	62 (27.2)	119 (38.1)	43 (34.7)	17 (14.0)	27 (12.3)	99 (33.8)	90 (25.9)	3 (14.3)	286 (26.7)	263 (30.7)	549 (28.5)
어느 정도 원하던 분야	111 (42.2)	93 (40.8)	141 (45.2)	53 (42.7)	26 (21.5)	109 (49.5)	128 (43.7)	153 (44.1)	13 (61.9)	462 (43.1)	365 (42.5)	827 (42.9)
어느 정도 원하고 주위의 압력	15 (5.7)	30 (13.2)	13 (4.2)	11 (8.9)	10 (8.3)	24 (10.9)	14 (4.8)	24 (6.9)	5 (23.8)	82 (7.7)	64 (7.5)	146 (7.6)
전혀 원치않던 분야와 성격부	39 (14.8)	29 (12.7)	27 (8.7)	13 (10.5)	59 (48.8)	49 (22.3)	44 (15.0)	74 (21.3)	-	208 (19.4)	126 (14.7)	334 (17.3)
전혀 원치않던 분야와 주위압력	7 (2.7)	11 (4.8)	8 (2.6)	3 (2.4)	7 (5.8)	10 (4.5)	5 (1.7)	5 (1.4)	-	22 (2.1)	34 (4.0)	56 (2.9)
무 응 답	2 (0.8)	3 (1.3)	4 (1.3)	1 (0.8)	2 (1.7)	1 (0.5)	3 (1.0)	1 (0.3)	-	11 (1.0)	6 (0.7)	17 (0.9)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7) 학부(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학부(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을 보면, '본인'이 46.0%(전년도 48.9%)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본인의 학부(과) 선택에 대한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 20.7%(전년도 19.0%), '부모'가 18.7%(전년도 19.0%)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배·친구'의 경우도 14.2%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결국 자신의 장래를 짚어질 학부(과)를 선택할 경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보다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대학별로 보면, '본인'은 의과대생, '교사'는 농과대생, '부모'는 사범대생, '선배나 친구'는 해양대생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학부(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영향준사람												
선배, 친구	33 (12.5)	38 (16.7)	43 (13.8)	8 (6.5)	11 (9.1)	43 (19.5)	52 (17.7)	43 (12.4)	3 (14.3)	160 (14.9)	114 (13.3)	274 (14.2)

영향준사람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 사		47 (17.9)	36 (15.8)	64 (20.5)	39 (31.5)	42 (34.7)	42 (19.1)	50 (17.1)	79 (22.8)	1 (4.8)	231 (21.6)	169 (19.7)	400 (20.7)
부 모		45 (17.1)	59 (25.9)	40 (12.8)	41 (33.1)	31 (25.6)	45 (20.5)	42 (14.3)	54 (15.6)	4 (19.0)	189 (17.6)	172 (20.0)	361 (18.7)
본 인		136 (51.7)	94 (41.2)	165 (52.9)	36 (29.0)	35 (28.9)	90 (40.9)	148 (50.5)	170 (49.0)	13 (61.9)	488 (45.6)	3무응답 (46.5)	887 (46.0)
무 응 답		2 (0.8)	1 (0.4)	-	-	2 (1.7)	-	1 (0.3)	1 (0.3)	-	3 (0.3)	4 (0.5)	7 (0.4)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8) 학부(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

학부(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을 보면, '취업전망' 때문이 28.5%(전년도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입학 가능성'과 '자신의 적성'이 21.7%(전년도 각각 23.6%와 19.6%), '학문적 흥미' 16.1%(전년도 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취업전망'과 '학문적 흥미'는 의과대, '입학 가능성'은 농과대, '자신의 적성'은 인문대 신입생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서 <표 25> 본교를 지원한 요인중 '합격 가능성'에, <표 28> 학부(과)에 지망하게 된 과정중 '전혀 원치 않던 분야와 성적 및 압력', 그리고 <표 34> 장래에 전공과 관련된 직종의 희망여부중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농과대 신입생이 높은 반응을 나타낸 것은 '입학 가능성'과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로 보면, '입학 가능성'은 남학생이, '취업전망', '자신의 적성', '학문적 흥미' 및 '주위의 압력'은 여학생이 더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30> 학부(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

<단위 : 명(%)>

선택기준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취업전망		58 (22.1)	73 (32.0)	113 (36.2)	44 (35.5)	17 (14.0)	68 (30.9)	76 (25.9)	87 (25.1)	14 (66.7)	296 (27.6)	254 (29.6)	550 (28.5)
사회적 지위를 획득		5 (1.9)	27 (11.8)	17 (5.4)	11 (8.9)	5 (4.1)	4 (1.8)	12 (4.1)	11 (3.2)	1 (4.8)	63 (5.9)	30 (3.5)	93 (4.8)
학문적 흥미		57 (21.7)	31 (13.6)	54 (17.3)	22 (17.7)	11 (9.1)	21 (9.5)	62 (21.2)	48 (13.8)	5 (23.8)	147 (13.7)	164 (19.1)	311 (16.1)

구분 선택기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입학 가능성	55 (20.9)	42 (18.4)	50 (16.0)	6 (4.8)	48 (39.7)	73 (33.2)	48 (16.4)	97 (28.0)	-	261 (24.4)	158 (18.4)	419 (21.7)
자신의 적성	74 (28.1)	46 (20.2)	61 (19.6)	34 (27.4)	20 (16.5)	25 (11.4)	80 (27.3)	77 (22.2)	1 (4.8)	221 (20.6)	197 (23.0)	418 (21.7)
주위의 압력	11 (4.2)	8 (3.5)	12 (3.8)	6 (4.8)	16 (13.2)	22 (10.0)	10 (3.4)	18 (5.2)	-	56 (5.2)	47 (5.5)	103 (5.3)
무 응 답	3 (1.1)	1 (0.4)	5 (1.6)	1 (0.8)	4 (3.3)	7 (3.2)	5 (1.7)	9 (2.6)	-	27 (2.5)	8 (0.9)	35 (1.8)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29)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 수집경로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의 수집경로를 보면, '선배나 친구'가 37.5%(전년도 3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학의 안내서'가 26.1%(전년도 32.7%), '교사' 20.2%(전년도 17.5%), '잡지나 신문'이 7.8%(전년도 6.5%)로 전년도 신입생의 정보 수집경로의 순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중요한 대학 입학정보를 '선배나 친구, 또는 대학의 안내서'로부터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대학별로 보면 '선배나 친구', '잡지나 신문'은 의과대, '교사'와 '대학의 안내서'는 농과대 신입생들이 가장 큰 수집경로로 꼽고 있다. 또한, 성별로는 '교사', '선배나 친구'는 남학생이, '잡지나 신문', '대학의 안내서'는 여학생이 보다 큰 수집경로로 나타났다.

〈표 31〉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의 수집경로

〈단위 : 명(%)〉

구분 수집경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교 사	60 (22.8)	41 (18.0)	45 (14.4)	41 (33.1)	48 (39.7)	38 (17.3)	45 (15.4)	70 (20.2)	2 (9.5)	219 (20.4)	171 (19.9)	390 (20.2)
선배나 친구	100 (38.0)	89 (39.0)	110 (35.3)	45 (36.3)	26 (21.5)	90 (40.9)	129 (44.0)	125 (36.0)	10 (47.6)	416 (38.8)	308 (35.9)	724 (37.5)
잡지나 신문	12 (4.6)	24 (10.5)	38 (12.2)	11 (8.9)	3 (2.5)	6 (2.7)	23 (7.8)	29 (8.4)	4 (19.0)	79 (7.4)	71 (8.3)	150 (7.8)
대학의 안내서	58 (22.1)	61 (26.8)	92 (29.5)	20 (16.1)	36 (29.8)	63 (28.6)	72 (24.6)	98 (28.2)	3 (14.3)	273 (25.5)	230 (26.8)	503 (26.1)
전공한 사람	24 (9.1)	12 (5.3)	18 (5.8)	5 (4.0)	4 (3.3)	20 (9.1)	15 (5.1)	19 (5.5)	2 (9.5)	60 (5.6)	59 (6.9)	119 (6.2)

구분 수집경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무 응 답	9 (3.4)	1 (0.4)	9 (2.9)	2 (1.6)	4 (3.3)	3 (1.4)	9 (3.1)	6 (1.7)	-	24 (2.2)	19 (2.2)	43 (2.2)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0) 학부(과)를 선택한 시기

신입생이 학부(과)를 선택한 시기를 보면,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42.6%(전년도 45.0%)로서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이 '고교 3학년에서 입학원서 접수전'이 39.9%(전년도 39.2%), '고교 1~2학년말' 11.2%(전년도 10.3%), '중학교, 또는 그 이전' 4.9%(전년도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입학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일찍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하여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적성보다는 성적이나 대학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별로 보면 농과대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에 학부(과)를 선택함으로써 보다 자신의 성적에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47.6%)이 남학생(38.6%)에 비해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에 학부(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2〉 학부(과)를 선택한 시기

〈단위 : 명(%)〉

구분 선택시기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입 학 원 서 접수기간중	102 (38.8)	124 (54.4)	115 (36.9)	50 (40.3)	64 (52.9)	87 (39.5)	121 (41.3)	151 (43.5)	7 (33.3)	413 (38.6)	408 (47.6)	821 (42.6)
고교 3~ 입학원서 접수전	112 (42.6)	73 (32.0)	125 (40.1)	50 (40.3)	48 (39.7)	108 (49.1)	115 (39.2)	127 (36.6)	12 (57.1)	470 (43.9)	300 (35.0)	770 (39.9)
고교 1~2학년말	31 (11.8)	19 (8.3)	53 (17.0)	12 (9.7)	6 (5.0)	18 (8.2)	29 (9.9)	49 (14.1)		124 (11.6)	93 (10.8)	217 (11.2)
중학교 또는 그 이전	15 (5.7)	10 (4.4)	14 (4.5)	11 (8.9)	1 (0.8)	3 (1.4)	24 (8.2)	14 (4.0)	2 (9.5)	47 (4.4)	47 (5.5)	94 (4.9)
무 응 답	3 (1.1)	2 (0.9)	5 (1.6)	1 (0.8)	2 (1.7)	4 (1.8)	4 (1.4)	6 (1.7)		17 (1.6)	10 (1.2)	27 (1.4)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1) 지망학부(과)에 대한 인지도

학생이 지원하기전 지망학부(과)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대강 알았다', '꽤 알았다', '아주 잘 알았다'가 65.9%(전년도 63.2%)에 불과하며, '알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몰랐다'가 33.2%(전년도 36.1%)로서 상당수의 학생이 지망학부(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9학년도 신입생부터 금년도 신입생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망학부(과)에 대해 '알았다'가 62.1%→63.0%→63.2%→65.9%, '몰랐다'가 37.6%→36.2%→36.1%→33.2%로 지망학부(과)에 대한 정보를 점점 많이 갖고 입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지망학(과)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주 잘 알았다	5 (1.9)	10 (4.4)	9 (2.9)	3 (2.4)	1 (0.8)	4 (1.8)	6 (2.0)	4 (1.2)	-	28 (2.6)	14 (1.6)	42 (2.2)
꽤 알았다	29 (11.0)	29 (12.7)	27 (8.7)	29 (23.4)	8 (6.6)	31 (14.1)	44 (15.0)	27 (7.8)	2 (9.5)	146 (13.6)	80 (9.3)	226 (11.7)
대강 알았다	149 (56.7)	119 (52.2)	171 (54.8)	62 (50.0)	41 (33.9)	116 (52.7)	162 (55.3)	168 (48.4)	15 (71.4)	542 (50.6)	461 (53.7)	1003 (52.0)
알지 못하는 편임	61 (23.2)	62 (27.2)	78 (25.0)	21 (16.9)	41 (33.9)	51 (23.2)	64 (21.8)	107 (30.8)	4 (19.0)	253 (23.6)	236 (27.5)	489 (25.3)
전혀 몰랐음	18 (6.8)	8 (3.5)	23 (7.4)	8 (6.5)	27 (22.3)	15 (6.8)	16 (5.5)	37 (10.7)	-	92 (8.6)	60 (7.0)	152 (7.9)
무응답	1 (0.4)	-	4 (1.3)	1 (0.8)	3 (2.5)	3 (1.4)	1 (0.3)	4 (1.2)	-	10 (0.9)	7 (0.8)	17 (0.9)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2) 장래에 전공과 관련된 직종의 희망여부

학생들이 장래에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알아본 결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나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각각 48.8%와 38.7%로 87.5%(전년도 87.1%)나 반응하고 있어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도 11.5%(전년도 12.0%)나 된다. 그리고 대학별로 보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은 의과대와 인문대, '전공과 관련한 직종'은 사범대와 법정대, '전공과 무관한 직종'은 농과대와 해양대 신입생이 다른 대학 신입생에 비해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 25〉 본교를 지원한 요인중 '합격 가능성'에, 〈표 28〉 학부(과)에 지망하게 된 과정 중 '전혀 원치 않던 분야와 성적 및 압력', 그리고 〈표 30〉 학부(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 중 '입학 가능성'에 농과대 신입생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질문에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전공과 무관한 직종'이나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여학생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장래에 전공과 관련된 직종의 희망여부

〈단위 : 명(%)〉

구분 희망직종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공과 무관한 직종	29 (11.0)	18 (7.9)	23 (7.4)	11 (8.9)	34 (28.1)	38 (17.3)	30 (10.2)	39 (11.2)	-	134 (12.5)	88 (10.3)	222 (11.5)
전공과 관련된 직종	85 (32.3)	112 (49.1)	126 (40.4)	55 (44.4)	44 (36.4)	77 (35.0)	110 (37.5)	133 (38.3)	4 (19.0)	443 (41.4)	303 (35.3)	746 (38.7)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	147 (55.9)	97 (42.5)	160 (51.3)	57 (46.0)	42 (34.7)	103 (46.8)	150 (51.2)	169 (48.7)	17 (81.0)	481 (44.9)	461 (53.7)	942 (48.8)
무응답	2 (0.8)	1 (0.4)	3 (1.0)	1 (0.8)	1 (0.8)	2 (0.9)	3 (1.0)	6 (1.7)	-	13 (1.2)	6 (0.7)	19 (1.0)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3)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인 수학여부

학생이 현재 선택한 전공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보면, '끝까지 계속하겠다'가 51.8%(전년도 53.7%)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부전공으로 택해서 해보겠다'가 18.8%(전년도 19.4%)로 나타났으며, '졸업전에 전과해 보겠다' 15.7%(전년도 13.0%), '학사편입을 해서 원하던 전공공부를 해보겠다' 5.1%(전년도 5.6%),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 4.1%(전년도 4.1%), '대학원을 진학하여 원하던 전공공부를 해보겠다' 3.0%(전년도 3.0%)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비록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46.7%(전년도 45.1%)의 학생은 자신이 원하던 전공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전공 선택이 바르게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선택한 전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여학생이 52.8%(전년도 56.5%)로 남학생의 51.0%(전년도 51.0%)보다 1.8%(전년도 5.5%) 앞서고 있다.

〈표 35〉 선택한 전공의 계속적인 수학여부

〈단위 : 명(%)〉

구분 수학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끝까지 계속 하겠다	136 (51.7)	134 (58.8)	195 (62.5)	72 (58.1)	33 (27.3)	92 (41.8)	161 (54.9)	158 (45.5)	18 (85.7)	546 (51.0)	453 (52.8)	999 (51.8)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부전공으로 택 함	41 (15.6)	40 (17.5)	50 (16.0)	26 (21.0)	20 (16.5)	58 (26.4)	57 (19.5)	71 (20.5)	-	194 (18.1)	169 (19.7)	363 (18.8)
다시 입학 공 부	8 (3.0)	11 (4.8)	11 (3.5)	11 (8.9)	3 (2.5)	7 (3.2)	9 (3.1)	20 (5.8)	-	47 (4.4)	33 (3.8)	80 (4.1)
졸업전 전과	49 (18.6)	23 (10.1)	37 (11.9)	7 (5.6)	44 (36.4)	38 (17.3)	40 (13.7)	63 (18.2)	1 (4.8)	180 (16.8)	122 (14.2)	302 (15.7)
학사면입을 통해 전공	17 (6.5)	8 (3.5)	10 (3.2)	2 (1.6)	14 (11.6)	14 (6.4)	16 (5.5)	17 (4.9)	-	59 (5.5)	39 (4.5)	98 (5.1)
대학원 진학	9 (3.4)	8 (3.5)	7 (2.2)	5 (4.0)	3 (2.5)	5 (2.3)	7 (2.4)	12 (3.5)	2 (9.5)	25 (2.3)	33 (3.8)	58 (3.0)
무 응 답	3 (1.1)	4 (1.8)	2 (0.6)	1 (0.8)	4 (3.3)	6 (2.7)	3 (1.0)	6 (1.7)	-	20 (1.9)	9 (1.0)	29 (1.5)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4) 교수에 대한 기대

학생이 교수에 대한 기대를 보면, '전공학문의 지도를 받고 싶다'가 43.8%(전년도 47.0%)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가 27.1%(전년도 27.4%)의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 11.9%(전년도 12.6%), '인생관에 대한 조언' 10.3%(전년도 7.9%),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3.9%(전년도 2.2%)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대학 별로 비교하면, '전공학문의 지도를 받고 싶다'가 자연대,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의과대,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는 농과대, '인생관에 대한 조언'은 해양대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인생관에 대한 조언'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을, 여학생은 '전공학문의 지도를 받고 싶다',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36〉 교수에 대한 기대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공학문의 지 도	127 (48.3)	95 (41.7)	139 (44.6)	60 (48.4)	39 (32.2)	85 (38.6)	142 (48.5)	149 (42.9)	9 (42.9)	457 (42.7)	388 (45.2)	845 (43.8)

구분 기대분야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전공 이외의 학문적 지도	29 (11.0)	29 (12.7)	44 (14.1)	11 (8.9)	19 (15.7)	20 (9.1)	32 (10.9)	43 (12.4)	2 (9.5)	125 (11.7)	104 (12.1)	229 (11.9)
인 생 관 에 대 한 조 언	16 (6.1)	29 (12.7)	28 (9.0)	12 (9.7)	15 (12.4)	32 (14.5)	25 (8.5)	41 (11.8)	-	123 (11.5)	75 (8.7)	198 (10.3)
사 회 적 인 문 제 논 의	12 (4.6)	13 (5.7)	7 (2.2)	6 (4.8)	6 (5.0)	11 (5.0)	5 (1.7)	14 (4.0)	2 (9.5)	50 (4.7)	26 (3.0)	76 (3.9)
따 뜻 한 인 간 적 관 계 형 성	74 (28.1)	54 (23.7)	85 (27.2)	29 (23.4)	36 (29.8)	65 (29.5)	86 (29.4)	86 (24.8)	8 (38.1)	282 (26.3)	241 (28.1)	523 (27.1)
인 간 적 인 관 계 형 성	4 (1.5)	4 (1.8)	5 (1.6)	5 (4.0)	4 (3.3)	2 (0.9)	1 (0.3)	8 (2.3)	-	20 (1.9)	13 (1.5)	33 (1.7)
무 응 답	1 (0.4)	4 (1.8)	4 (1.3)	1 (0.8)	2 (1.7)	5 (2.3)	2 (0.7)	6 (1.7)	-	14 (1.3)	11 (1.3)	25 (1.3)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5)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여부와 유형

학생이 입시준비를 위해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과외지도를 받았는가를 알아 본 결과, '과외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가 56.2%(전년도 62.2%)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과외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학원 수강'이 21.6%(전년도 16.6%), '개인지도'가 14.5%(전년도 14.6%)의 순으로 높았고, '그룹지도' 2.8%(전년도 2.2%), '두 가지 형태이상 과외지도'를 받은 학생은 1.5%(전년도 1.1%)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학원수강'과 '개인지도' 외의 다른 형태의 과외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학원수강'과 '개인지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나타났다.

〈표 37〉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여부와 유형

〈단위 : 명(%)〉

구분 과외형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개 인 지 도	54 (20.5)	33 (14.5)	62 (19.9)	14 (11.3)	16 (13.2)	20 (9.1)	37 (12.6)	40 (11.5)	3 (14.3)	142 (13.3)	137 (16.0)	279 (14.5)
그 룹 지 도	7 (2.7)	7 (3.1)	7 (2.2)	5 (4.0)	5 (4.1)	5 (2.3)	9 (3.1)	9 (2.6)	-	36 (3.4)	18 (2.1)	54 (2.8)
학 원 수 강	61 (23.2)	36 (15.8)	53 (17.0)	40 (32.3)	25 (20.7)	47 (21.4)	64 (21.8)	84 (24.2)	6 (28.6)	205 (19.1)	211 (24.6)	416 (21.6)

과외형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입주 과외	4 (1.5)	2 (0.9)	1 (0.3)	2 (1.6)	-	1 (0.5)	1 (0.3)	-	-	6 (0.6)	5 (0.6)	11 (0.6)
한 적 없다	132 (50.2)	140 (61.4)	170 (54.5)	57 (46.0)	70 (57.9)	135 (61.4)	169 (57.7)	201 (57.9)	11 (52.4)	626 (58.5)	459 (53.5)	1085 (56.2)
두 형태 의 과 외	1 (0.4)	4 (1.8)	7 (2.2)	1 (0.8)	1 (0.8)	3 (1.4)	6 (2.0)	5 (1.4)	1 (4.8)	17 (1.6)	12 (1.4)	29 (1.5)
세 형태 의 과 외	-	1 (0.4)	2 (0.6)	3 (2.4)	1 (0.8)	-	1 (0.3)	2 (0.6)	-	7 (0.7)	3 (0.3)	10 (0.5)
네형태 과외	1 (0.4)	-	2 (0.6)	-	-	2 (0.9)	2 (0.7)	1 (0.3)	-	7 (0.7)	1 (0.1)	8 (0.4)
무 응 답	3 (1.1)	5 (2.2)	8 (2.6)	2 (1.6)	3 (2.5)	7 (3.2)	4 (1.4)	5 (1.4)	-	25 (2.3)	12 (1.4)	37 (1.9)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6)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생의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스러웠다'가 47.4%(전년도 47.4%), '그저 그랬다'가 29.7%(전년도 30.3%), '매우 만족스러웠다'가 12.1%(전년도 11.4%)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 보면,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에 여학생은 63.7%(전년도 58.9%)이나, 남학생은 56.3%(전년도 58.8%)로 나타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반응을 보여 여학생이 만족스러운 고교생활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8〉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만족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만족	38 (14.4)	26 (11.4)	43 (13.8)	16 (12.9)	22 (18.2)	21 (9.5)	41 (14.0)	23 (6.6)	3 (14.3)	127 (11.9)	106 (12.4)	233 (12.1)
만 족	128 (48.7)	103 (45.2)	157 (50.3)	65 (52.4)	53 (43.8)	90 (40.9)	150 (51.2)	158 (45.5)	11 (52.4)	475 (44.4)	440 (51.3)	915 (47.4)
그저 그랬다	81 (30.8)	65 (28.5)	82 (26.3)	29 (23.4)	37 (30.6)	77 (35.0)	77 (26.3)	119 (34.3)	6 (28.6)	333 (31.1)	240 (28.0)	573 (29.7)

구분 만족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불만족	10 (3.8)	16 (7.0)	10 (3.2)	4 (3.2)	3 (2.5)	11 (5.0)	14 (4.8)	19 (5.5)	1 (4.8)	54 (5.0)	34 (4.0)	88 (4.6)
매우 불만족	5 (1.9)	7 (3.1)	14 (4.5)	6 (4.8)	5 (4.1)	16 (7.3)	8 (2.7)	23 (6.6)	-	61 (5.7)	23 (2.7)	84 (4.4)
검정고시 출신	-	7 (3.1)	2 (0.6)	3 (2.4)	1 (0.8)	1 (0.5)	1 (0.3)	1 (0.3)	-	9 (0.8)	7 (0.8)	16 (0.8)
무응답	1 (0.4)	4 (1.8)	4 (1.3)	1 (0.8)	-	4 (1.8)	2 (0.7)	4 (1.2)	-	12 (1.1)	8 (0.9)	20 (1.0)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7) 대인관계의 정도

학생의 대인관계를 보면, '원만하다'는 편이 92.0%(전년도 93.2%)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원만하지 않고 힘들다'는 반응이 6.9%(전년도 5.9%)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원만하다'는 반응은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원만하지 못하다'는 반응에는 남학생이 7.7%(전년도 7.1%)로서 여학생의 5.9%(전년도 4.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9〉 대인관계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대인관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매우 원만하다	31 (11.8)	29 (12.7)	40 (12.8)	14 (11.3)	23 (19.0)	27 (12.3)	38 (13.0)	35 (10.1)	3 (14.3)	143 (13.4)	97 (11.3)	240 (12.4)
원만하다	215 (81.7)	175 (76.8)	252 (80.8)	97 (78.2)	91 (75.2)	177 (80.5)	230 (78.5)	282 (81.3)	17 (81.0)	835 (78.0)	701 (81.7)	1536 (79.6)
원만치 않다	15 (5.7)	18 (7.9)	14 (4.5)	8 (6.5)	7 (5.8)	9 (4.1)	21 (7.2)	25 (7.2)	1 (4.8)	73 (6.8)	45 (5.2)	118 (6.1)
매우 힘들다	2 (0.8)	1 (0.4)	3 (1.0)	3 (2.4)	-	3 (1.4)	2 (0.7)	2 (0.6)	-	10 (0.9)	6 (0.7)	16 (0.8)
무응답	-	5 (2.2)	3 (1.0)	2 (1.6)	-	4 (1.8)	2 (0.7)	3 (0.9)	-	10 (0.9)	9 (1.0)	19 (1.0)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8) 이성친구의 유무

신입생들의 이성친구를 알아본 결과, '꾸준히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다'에 14.7%(전년도 12.7%), '자주 만나지는 않으나 이성친구가 있다'에 22.1%(전년도 20.5%), '이성친구가 없다'에 61.7%(전년도 65.7%)의 반응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볼 때 36.8%(전년도 33.2%)의 학생들이 이성친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이 38.5%(전년도 36.2%)로 여학생의 34.8%(전년도 30.0%) 보다 이성친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4년간('99학년도부터 '02학년도까지) 신입생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성친구를 사귀는 학생은 29.5%→31.7%→33.2%→36.8%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학교에서는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생활에서의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0〉 이성친구의 유무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꾸준히 만나는 이성친구 있다	32 (12.2)	32 (14.0)	63 (20.2)	21 (16.9)	18 (14.9)	33 (15.0)	45 (15.4)	38 (11.0)	2 (9.5)	155 (14.5)	129 (15.0)	284 (14.7)
자주 만나지 않으나 이성친구 있다	63 (24.0)	48 (21.1)	58 (18.6)	31 (25.0)	30 (24.8)	52 (23.6)	59 (20.1)	81 (23.3)	5 (23.8)	257 (24.0)	170 (19.8)	427 (22.1)
이성친구가 많다	167 (63.5)	141 (61.8)	187 (59.9)	70 (56.5)	71 (58.7)	131 (59.5)	187 (63.8)	223 (64.3)	14 (66.7)	647 (60.4)	544 (63.4)	1191 (61.7)
무 응 답	1 (0.4)	7 (3.1)	4 (1.3)	2 (1.6)	2 (1.7)	4 (1.8)	2 (0.7)	5 (1.4)	-	12 (1.1)	15 (1.7)	27 (1.4)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39)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점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점을 보면, '적성 및 진로'가 35.1%(전년도 32.0%)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이 '학업' 22.2%(전년도 27.1%), '성격' 8.8%(전년도 9.5%), '대인관계' 8.3%(전년도 6.1%),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6.0%(전년도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적성 및 진로'와 '학업'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적성 및 진로'와 '학업'에서는 여학생이 41.0%(전년도 35.4%)와 23.0%(전년도 28.8%)로 남학생의 30.3%(전년도 28.9%)와

21.6%(전년도 25.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격',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22> 입학 후 예상되는 걱정거리에서 처럼 남학생은 '경제적인 면'과 '이성관계'에, 여학생은 '학업문제'와 '적성 및 진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41>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점

<단위 : 명(%)>

구분 문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업문제	58 (22.1)	42 (18.4)	62 (19.9)	35 (28.2)	30 (24.8)	43 (19.5)	73 (25.1)	80 (23.1)	6 (28.6)	231 (21.6)	198 (23.0)	429 (22.2)
성격문제	14 (5.3)	22 (9.6)	18 (5.8)	21 (16.9)	8 (6.6)	24 (10.9)	34 (11.6)	29 (8.4)	-	112 (10.5)	58 (6.8)	170 (8.8)
외모문제	14 (5.3)	8 (3.5)	13 (4.2)	8 (6.5)	6 (5.0)	10 (4.5)	5 (1.7)	13 (3.7)	-	38 (3.5)	39 (4.5)	77 (4.0)
이성관계	7 (2.7)	6 (2.6)	13 (4.2)	2 (1.6)	9 (7.4)	13 (5.9)	8 (2.7)	12 (3.5)	1 (4.8)	58 (5.4)	13 (1.5)	71 (3.7)
건강문제	12 (4.6)	10 (4.4)	17 (5.4)	6 (4.8)	6 (5.0)	9 (4.1)	7 (2.4)	20 (5.8)	1 (4.8)	62 (5.8)	26 (3.0)	88 (4.6)
부모와의 관계	9 (3.4)	8 (3.5)	5 (1.6)	1 (0.8)	4 (3.3)	6 (2.7)	5 (1.7)	8 (2.3)	-	19 (1.8)	27 (3.1)	46 (2.4)
종교문제	4 (1.5)	2 (0.9)	-	-	-	2 (0.9)	3 (1.0)	1 (0.3)	-	10 (0.9)	2 (0.2)	12 (0.6)
가정의 경제적인문제	15 (5.7)	15 (6.6)	25 (8.0)	6 (4.8)	8 (6.6)	13 (5.9)	12 (4.1)	21 (6.1)	-	71 (6.6)	44 (5.1)	115 (6.0)
적성 및 진로문제	106 (40.3)	80 (35.1)	124 (39.7)	32 (25.8)	35 (28.9)	68 (30.9)	115 (39.2)	109 (31.4)	8 (38.1)	325 (30.3)	352 (41.0)	677 (35.1)
성문제	1 (0.4)	4 (1.8)	4 (1.3)	-	4 (3.3)	12 (5.5)	1 (0.3)	9 (2.6)	-	32 (3.0)	3 (0.3)	35 (1.8)
대인관계	19 (7.2)	23 (10.1)	22 (7.1)	10 (8.1)	9 (7.4)	14 (6.4)	26 (8.9)	33 (9.5)	4 (19.0)	89 (8.3)	71 (8.3)	160 (8.3)
무응답	4 (1.5)	8 (3.5)	9 (2.9)	3 (2.4)	2 (1.7)	6 (2.7)	4 (1.4)	12 (3.5)	1 (4.8)	24 (2.2)	25 (2.9)	49 (2.5)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40) 개인문제 의논대상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54.3%(전년도 55.3%)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본인'이 17.1%(전년도 18.9%), '어머니' 11.8%(전년도 11.9%), '형제 또는 친척' 8.3%(전년도 7.6%), '아버지' 3.6%(전년도 3.6%)의 순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아버지'를 의논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더 많은 반면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20.4%(전년도 22.1%), 여학생이 12.8%(전년도 15.5%)로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남학생이 보다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2〉 개인문제 의논대상

〈단위 : 명(%)〉

구분 의논대상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아 버 지	3 (1.1)	14 (6.1)	10 (3.2)	6 (4.8)	6 (5.0)	8 (3.6)	10 (3.4)	11 (3.2)	2 (9.5)	49 (4.6)	21 (2.4)	70 (3.6)
어 머 니	30 (11.4)	31 (13.6)	30 (9.6)	26 (21.0)	20 (16.5)	16 (7.3)	37 (12.6)	34 (9.8)	4 (19.0)	103 (9.6)	125 (14.6)	228 (11.8)
친 구	156 (59.3)	103 (45.2)	183 (58.7)	54 (43.5)	66 (54.5)	127 (57.7)	160 (54.6)	186 (53.6)	12 (57.1)	574 (53.6)	473 (55.1)	1047 (54.3)
교 사	-	-	2 (0.6)	1 (0.8)	1 (0.8)	3 (1.4)	5 (1.7)	3 (0.9)	-	10 (0.9)	5 (0.6)	15 (0.8)
선 배	4 (1.5)	5 (2.2)	5 (1.6)	4 (3.2)	3 (2.5)	2 (0.9)	6 (2.0)	10 (2.9)	-	27 (2.5)	12 (1.4)	39 (2.0)
상 담 교 사	-	6 (2.6)	3 (1.0)	1 (0.8)	-	4 (1.8)	1 (0.3)	2 (0.6)	-	15 (1.4)	2 (0.2)	17 (0.9)
형 제 또 는 친척	21 (8.0)	23 (10.1)	22 (7.1)	12 (9.7)	11 (9.1)	12 (5.5)	28 (9.6)	30 (8.6)	1 (4.8)	63 (5.9)	97 (11.3)	160 (8.3)
본인 스스로	46 (17.5)	40 (17.5)	53 (17.0)	19 (15.3)	14 (11.6)	44 (20.0)	44 (15.0)	67 (19.3)	2 (9.5)	219 (20.4)	110 (12.8)	329 (17.1)
무 응 답	3 (1.1)	6 (2.6)	4 (1.3)	1 (0.8)	-	4 (1.8)	2 (0.7)	4 (1.2)	-	11 (1.0)	13 (1.5)	24 (1.2)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41)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치 및 부정부패' 24.9%(전년도 20.8%), '정치인

에 대한 불신' 24.7%(전년도 22.2%) 및 '빈부의 격차' 17.9%(전년도 16.0%), '경제' 14.3%(전년도 22.5%), '사회질서' 6.6%(전년도 6.3%), '상호 불신' 5.8%(전년도 6.9%), '청소년 비행' 4.1%(전년도 3.5%)의 순으로 들고 있다. 이를 남녀별,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경제', '정치인에 대한 불신', '사치 및 부정부패', '빈부의 격차', '상호 불신', '사회질서', '청소년 비행'의 순으로 나타나 급변하는 사회상과 분위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43〉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한국의문제												
경제문제	24 (9.1)	34 (14.9)	50 (16.0)	23 (18.5)	16 (13.2)	32 (14.5)	42 (14.3)	52 (15.0)	2 (9.5)	179 (16.7)	96 (11.2)	275 (14.3)
빈부의 격차문제	46 (17.5)	45 (19.7)	58 (18.6)	21 (16.9)	18 (14.9)	44 (20.0)	56 (19.1)	52 (15.0)	5 (23.8)	200 (18.7)	145 (16.9)	345 (17.9)
정치인에 대한 불신문제	75 (28.5)	64 (28.1)	80 (25.6)	29 (23.4)	22 (18.2)	46 (20.9)	74 (25.3)	82 (23.6)	5 (23.8)	256 (23.9)	221 (25.8)	477 (24.7)
청소년 비행문제	14 (5.3)	8 (3.5)	6 (1.9)	3 (2.4)	11 (9.1)	11 (5.0)	9 (3.1)	16 (4.6)	1 (4.8)	42 (3.9)	37 (4.3)	79 (4.1)
사회질서 (범죄·교통)문제	13 (4.9)	19 (8.3)	19 (6.1)	6 (4.8)	10 (8.3)	17 (7.7)	25 (8.5)	17 (4.9)	1 (4.8)	67 (6.3)	60 (7.0)	127 (6.6)
사치 및 부정부패문제	71 (27.0)	37 (16.2)	76 (24.4)	33 (26.6)	37 (30.6)	54 (24.5)	68 (23.2)	무응답 (28.5)	5 (23.8)	243 (22.7)	237 (27.6)	480 (24.9)
상호불신문제	15 (5.7)	15 (6.6)	20 (6.4)	6 (4.8)	7 (5.8)	11 (5.0)	15 (5.1)	21 (6.1)	2 (9.5)	65 (6.1)	47 (5.5)	112 (5.8)
무응답	5 (1.9)	6 (2.6)	3 (1.0)	3 (2.4)	-	5 (2.3)	4 (1.4)	8 (2.3)	-	19 (1.8)	15 (1.7)	34 (1.8)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42)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개발'에 34.7%(전년도 35.1%), '문화의 낙후성' 20.6%(전년도 26.6%), '환경 보존' 9.7%(전년도 9.6%), '교육' 7.4%(전년도 5.2%)의 순으로, 이 응답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개발과 관련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대학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남녀별로 보면, '지역개발'에 대하여서는 남·녀 학생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문화의 낙후성'은 여학생이 27.9%(전년도 34.7%), 남학생이 14.8%(전년도 19.1%)로 여

학생이 남학생 보다 현저하게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44〉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단위 : 명(%)〉

구분 제주도 문제점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청 소 년 비 행 문 제	5 (1.9)	6 (2.6)	5 (1.6)	4 (3.2)	4 (3.3)	13 (5.9)	4 (1.4)	16 (4.6)	-	46 (4.3)	11 (1.3)	57 (3.0)
지 역 개 발 문 제	101 (38.4)	88 (38.6)	109 (34.9)	47 (37.9)	36 (29.8)	76 (34.5)	96 (32.8)	109 (31.4)	8 (38.1)	383 (35.8)	287 (33.4)	670 (34.7)
상 공 업 의 화 약	6 (2.3)	10 (4.4)	14 (4.5)	4 (3.2)	4 (3.3)	3 (1.4)	9 (3.1)	19 (5.5)	-	47 (4.4)	22 (2.6)	69 (3.6)
교 통 문 제	12 (4.6)	4 (1.8)	19 (6.1)	3 (2.4)	3 (2.5)	6 (2.7)	14 (4.8)	12 (3.5)	-	48 (4.5)	25 (2.9)	73 (3.8)
문 화 의 낙 후 성 문 제	68 (25.9)	46 (20.2)	46 (14.7)	34 (27.4)	23 (19.0)	37 (16.8)	70 (23.9)	67 (19.3)	6 (28.6)	158 (14.8)	239 (27.9)	397 (20.6)
환 경 보 존 문 제	16 (6.1)	26 (11.4)	27 (8.7)	5 (4.0)	11 (9.1)	25 (11.4)	25 (8.5)	49 (14.1)	3 (14.3)	110 (10.3)	77 (9.0)	187 (9.7)
교 육 문 제	25 (9.5)	14 (6.1)	21 (6.7)	6 (4.8)	10 (8.3)	15 (6.8)	19 (6.5)	32 (9.2)	1 (4.8)	74 (6.9)	69 (8.0)	143 (7.4)
농 업 문 제	12 (4.6)	17 (7.5)	16 (5.1)	8 (6.5)	13 (10.7)	17 (7.7)	7 (2.4)	24 (6.9)	1 (4.8)	67 (6.3)	48 (5.6)	115 (6.0)
제 주 사 람 이 아 니 라 잘 모 르	16 (6.1)	10 (4.4)	52 (16.7)	11 (8.9)	16 (13.2)	24 (10.9)	45 (15.4)	10 (2.9)	2 (9.5)	118 (11.0)	68 (7.9)	186 (9.6)
무 응 답	2 (0.8)	7 (3.1)	3 (1.0)	2 (1.6)	1 (0.8)	4 (1.8)	4 (1.4)	9 (2.6)	-	20 (1.9)	12 (1.4)	32 (1.7)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43)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는 '노력' 36.8%(전년도 33.6%)로 가장 높은 반응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실력'에 30.6%(전년도 37.7%), '인간관계' 10.5%(전년도 8.7%), '가문·배경' 4.9%(전년도 4.3%), '인격' 4.6%(전년도 5.2%), '재력' 4.3%(전년도 3.1%), '학벌' 4.0%(전년도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남녀별로 보면, '노력'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남학생이 36.9%(전년도 34.9%), 여학생의 36.7%(전년도 32.2%)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실력'에서는 여학생이 36.5%, '인간관계'에서는 남학생이 12.8%로 더 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격'이라고 보는 견해는 남·녀 학생이 비슷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실력'을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로 전년도 신입생의 필수조건과 다소 차이('실력', '노력'의 순임)를 나타나고 있다.

〈표 45〉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

(단위 : 명(%))

구분 성공조건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학 별	4 (1.5)	15 (6.6)	11 (3.5)	11 (8.9)	4 (3.3)	10 (4.5)	7 (2.4)	15 (4.3)	-	49 (4.6)	28 (3.3)	77 (4.0)
가문·배경	5 (1.9)	13 (5.7)	24 (7.7)	9 (7.3)	6 (5.0)	9 (4.1)	12 (4.1)	16 (4.6)	-	67 (6.3)	27 (3.1)	94 (4.9)
실 력	90 (34.2)	84 (36.8)	104 (33.3)	42 (33.9)	25 (20.7)	44 (20.0)	106 (36.2)	88 (25.4)	7 (33.3)	277 (25.9)	313 (36.5)	590 (30.6)
인 격	11 (4.2)	5 (2.2)	17 (5.4)	8 (6.5)	4 (3.3)	16 (7.3)	9 (3.1)	17 (4.9)	1 (4.8)	47 (4.4)	41 (4.8)	88 (4.6)
인간관계	30 (11.4)	19 (8.3)	28 (9.0)	11 (8.9)	13 (10.7)	31 (14.1)	32 (10.9)	35 (10.1)	3 (14.3)	137 (12.8)	65 (7.6)	202 (10.5)
운	8 (3.0)	6 (2.6)	9 (2.9)	4 (3.2)	4 (3.3)	5 (2.3)	3 (1.0)	17 (4.9)	-	35 (3.3)	21 (2.4)	56 (2.9)
노 력	101 (38.4)	71 (31.1)	104 (33.3)	37 (29.8)	57 (47.1)	91 (41.4)	109 (37.2)	130 (37.5)	10 (47.6)	395 (36.9)	315 (36.7)	710 (36.8)
재 력	11 (4.2)	10 (4.4)	11 (3.5)	1 (0.8)	7 (5.8)	9 (4.1)	12 (4.1)	22 (6.3)	-	50 (4.7)	33 (3.8)	83 (4.3)
무 응 답	3 (1.1)	5 (2.2)	4 (1.3)	1 (0.8)	1 (0.8)	5 (2.3)	3 (1.0)	7 (2.0)	-	14 (1.3)	15 (1.7)	29 (1.5)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44) 상담·봉사센터에서의 상담 희망여부

학생이 개인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봉사센터에 상담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가 51.9%(전년도 54.2%)로 '받고 싶지 않다' 44.9%(전년도 43.4%)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좀 더 상담·봉사센터의 홍보와 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은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그 반면에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은 남학생 보

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6〉 상담·봉사센터에서의 상담 희망여부

〈단위 : 명(%)〉

구분 상담희망여부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받고 싶다	127 (48.3)	112 (49.1)	177 (56.7)	70 (56.5)	63 (52.1)	120 (54.5)	140 (47.8)	178 (51.3)	15 (71.4)	566 (52.8)	436 (50.8)	1002 (51.9)
받고 싶지 않다	129 (49.0)	100 (43.9)	127 (40.7)	53 (42.7)	53 (43.8)	91 (41.4)	142 (48.5)	155 (44.7)	6 (28.6)	460 (43.0)	396 (46.2)	856 (44.4)
무 응 답	7 (2.7)	16 (7.0)	8 (2.6)	1 (0.8)	5 (4.1)	9 (4.1)	11 (3.8)	14 (4.0)	-	45 (4.2)	26 (3.0)	71 (3.7)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45)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을 보면, '취업문제'가 26.2%(전년도 25.9%)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진학문제' 22.1%(전년도 21.1%), '학교생활 적응문제' 9.5%(전년도 9.0%), '교우 및 대인관계 문제' 7.3%(전년도 8.0%), '해외 유학문제' 6.4%(전년도 7.5%), '성격문제' 4.3%(전년도 4.4%)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표 41〉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가정'과 '교우 및 대인관계'에서는 남학생이, '진학'과 '해외 유학'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반응을 보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담내용이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47〉 학생이 원하는 상담내용

〈단위 : 명(%)〉

구분 상담문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성 격 문 제	7 (2.7)	18 (7.9)	9 (2.9)	6 (4.8)	6 (5.0)	14 (6.4)	11 (3.8)	11 (3.2)	-	64 (6.0)	18 (2.1)	82 (4.3)
교 우 및 대인관계문제	13 (4.9)	22 (9.6)	17 (5.4)	19 (15.3)	11 (9.1)	16 (7.3)	19 (6.5)	22 (6.3)	1 (4.8)	80 (7.5)	60 (7.0)	140 (7.3)
가 정 문 제	4 (1.5)	7 (3.1)	5 (1.6)	7 (5.6)	2 (1.7)	6 (2.7)	3 (1.0)	5 (1.4)	1 (4.8)	29 (2.7)	11 (1.3)	40 (2.1)

구분 상담문제	대 학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남	여	
종 교 문 제	3 (1.1)	2 (0.9)	1 (0.3)	4 (3.2)	-	3 (1.4)	-	3 (0.9)	-	13 (1.2)	3 (0.3)	16 (0.8)
이 성 문 제	1 (0.4)	3 (1.3)	2 (0.6)	3 (2.4)	3 (2.5)	7 (3.2)	8 (2.7)	5 (1.4)	-	30 (2.8)	2 (0.2)	32 (1.7)
진 학 문 제	70 (26.6)	41 (18.0)	63 (20.2)	29 (23.4)	25 (20.7)	51 (23.2)	66 (22.5)	76 (21.9)	5 (23.8)	216 (20.2)	210 (24.5)	426 (22.1)
해 외 유 학 문 제	36 (13.7)	12 (5.3)	17 (5.4)	7 (5.6)	8 (6.6)	6 (2.7)	14 (4.8)	21 (6.1)	2 (9.5)	47 (4.4)	76 (8.9)	123 (6.4)
취 업 문 제	54 (20.5)	51 (22.4)	113 (36.2)	25 (20.2)	17 (14.0)	65 (29.5)	75 (25.6)	99 (28.5)	6 (28.6)	285 (26.6)	220 (25.6)	505 (26.2)
무 응 답	56 (21.3)	45 (19.7)	48 (15.4)	15 (12.1)	25 (20.7)	41 (18.6)	69 (23.5)	80 (23.1)	3 (14.3)	200 (18.7)	182 (21.2)	382 (19.8)
계	263 (100.0)	228 (100.0)	312 (100.0)	124 (100.0)	121 (100.0)	220 (100.0)	293 (100.0)	347 (100.0)	21 (100.0)	1071 (100.0)	858 (100.0)	1929 (100.0)

IV. 요약 및 제언

본 조사의 목적은 신입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대학생활, 대학의 이미지와 자긍심, 학부(과) 선택의 과정 및 계속적인 수학여부, 교수와의 관계, 고교생활, 대인관계, 사회문제, 가치관, 상담·봉사센터의 이용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와 학사행정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조사는 '02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중에 전체 신입생 2,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929명이 질문에 응답하였고,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의 생활근거지가 본도인 경우에 89.3%, 타 시·도인 경우 10.7%로 지난해의 8.6% 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입학후 자기집 외에 친척 및 친지, 자취, 하숙, 기숙사에서 거주를 원하는 신입생이 35.6%(688명)나 되어 기숙사 증축과,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원하는 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담 알선창구의 설치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재수를 하지 않은 신입생이 89.4%로 전년도 87.6% 보다 증가하여 재수한 신입생이 줄었고, 보호자는 대체로 아버지(87.4%)며, 어머니, 형·누나, 조부모, 친척 등이 보호자인 경우도 11.5%

(223명)로 나타났고,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신 경우가 91.5%로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만 살아 계신 경우가 4.9%, 양친이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경우도 5.8%, 양친 모두 안계신 경우가 1.1%(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호자의 학력이 전년도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가 감소(68.9%→66.9%)한 반면에 대학 및 대학원 중퇴, 또는 졸업자는 증가(27.7%→29.2%)하여 학부모의 학력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호자의 직업은 농업, 판매·서비스업과 상업(49.6%)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중 농업은 전년도에 비해 1.6%가 줄어 매년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고, 가족수는 4~5인 가족이 7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월수입이 100만원이상의 가정이 69.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신입생의 가정분위기는 대부분 화목하다는 반응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13.5%, 부모에 대해서 그저 그렇거나 불만족하다는 반응이 19.5%,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1.0%를 나타내고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 재학중 등록금, 또는 생활비는 주로 보호자가 부담(89.0%)하지만, 이는 전년도 88.9%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89.2%의 대부분 학생들은 장학금을 원하고 있어 장학금 확충이 시급하다.

여섯째, 신입생중 85.3%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용돈 및 학비 마련과 가족의 생계 유지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학에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학 진학의 목적은 주로 유망한 직업, 전문적 지식과 소질개발(79.9%)을 갖는데 있으며, 대학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전공공부(31.1%), 친구교제(27.5%), 자격시험을 준비(12.8%)하는 것이며, 입학 후 71.5%의 신입생이 취미와 스포츠분야의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고, 걱정거리로서는 공부와, 시간 및 생활관리가 68.1%나 차지하고 있어서 대학생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좀 더 다양한 과목을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신입생들이 본교에 대한 이미지는 아름다운 캠퍼스,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장학금 혜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교를 지원할 때 사전에 잘 모르고 지원한 학생이 34.4%, 지원시 고려한 요인은 지역적인 면이 42.3%, 정보의 주된 수집경로는 친구나 선배를 통해 얻는 경우가 31.1%이며, 본교 입학에 대한 자긍심은 27.0%에 불과하지만, 전년도 23.2%로 매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입생들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도 3.4%나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입학한 학부(과)에 지망하게 된 과정은 원하던 분야(79.0%)이긴 하나, 그렇지 못한 학생도 20.2%이고, 주로 본인 스스로(46.0%) 선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과)를 선택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취업전망(28.5%), 적성이나 입학 가능성(각각

2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는 선배나 친구(37.5%), 대학에서 발간하는 안내서에 의해 많이 수집(26.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택의 시기로는 아직도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42.6%)에 하고 있으며, 학부(과)에 대해 잘 모르면서 지망(33.2%)하고 있어서 학부(과) 선택에 따른 진로지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래에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하여서는 전공과 관련되거나, 살릴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것(87.5%)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미 선택한 전공을 계속하겠다는 학생이 51.8%이지만, 부전공을 택하거나, 전과나 학사 편입,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는 학생(43.7%)도 많이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번째, 신입생들은 교수들에게 인간적인 관계 보다는 전공학문의 지도를 가장 받고 싶어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 이외의 학문적인 지도와 더불어 인생관이나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등도 함께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열 한번째, 입시준비를 위해 과외를 받은 적이 41.9%의 학생이 응답하였으며, 고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그저 그랬거나 만족하지 못한 학생(38.7%)이 만족한 학생(59.5%)에 비해 적게 나타났고, 대인관계에서는 원만한 편(92.0%)이며,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학에서는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할 것이다.

열 두번째, 신입생들이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적성이나 진로(35.1%), 학업(22.2%), 성격(8.8%)을, 이러한 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친구(54.3%)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17.1%), 어머니(11.8%), 형제 또는 친척(8.3%), 아버지(3.6%) 순으로 하고 있어, 많은 경험을 가진 성인들이 올바르게 도울 수 있는 기회와 정기적인 심리 및 적성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열 세번째,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치와 부정부패(24.9%), 정치인에 대한 불신(24.7%), 빈부의 격차(17.9%)를 꼽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의 문제로는 지역개발(34.7%)과 문화의 낙후성(20.6%)을 들고 있어서 사회 및 정치지도자의 각성과 올바른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주지역 개발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열 네번째, 신입생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는 노력(36.8%), 실력(30.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담·봉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51.9%)하며, 학생들이 받고 싶은 내용은 취업문제(26.2%), 진학문제(22.1%), 학교생활 적응문제(9.5%), 교우 및 대인관계 문제(7.3%), 해외 유학문제(6.4%) 등으로 상담·봉사센터와 종합서비스센터에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

- 金斗和, '1994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1995.
金斗和, '1995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7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1996.
金斗和, '199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9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1998.
金斗和, '199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0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1999.
金斗和, '199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1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0.
金斗和, '2000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2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1.
金斗和, '200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3집,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2002.

<Abstract >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en in 2002

Kim, Doo-Hwa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collect and analyze basic data on freshmen, to understand students' general matters and to utilize the data as basic materials for student guidance and administration; to find out the students' general matters, we asked freshmen about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 values, university life, impression and pride on university, the reason for choosing their majors, whether they will keep studying, the relations with professors, school life in the past, social relationship, the point of view on social issues, and the extent of use of the consultation service center.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2,660 freshmen from February 21-22, 2001 during the orientation course, and 1,929 students answe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Most freshmen live in Jeju, yet for an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from other regions and cities we need to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to help them find lodgings.

2)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just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creased. Most students' supporters are their fathers, and the majority of all freshmen have both a father and a mother.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parents has been improving every year. In terms of parents' jobs, farmers, storekeepers, merchants and people working in the service industry are the majority, however, the number of parents dealing in agriculture is on the decrease. In terms of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students who have four to five members account for 71.6%. Although a monthly income of each family is increasing, students and their parents are still hard up for living and school expenses because of the economic recession and rising consumer prices. Therefore, we need to provide students with more opportunities to do part-time jobs and earn their school expenses.

3) Most of the freshmen live happily with their family, while 13.5% of the

respondents do not. Moreover, 19.5%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are unsatisfied with their parents, and 1.0% of them think that their parents are indifferent to them. So, we should develop programs for culture of sentiments and use them for student guidance.

4) While in university, students' tuition fees and living expenses are covered primarily by their supports or parents. Most freshmen, however, want scholarship (89.2%) and part-time jobs (85.3%), so we need to secure more funds for scholarship, help students get part-time jobs and ultimately to give students opportunities of a variety of experiences.

5) Their motives of university entrance are to get well-paid jobs, to acquire professional knowledge and to develop capability. What they want to do most are study the major, make friends and prepare for professional certificates. They also want to join clubs. They are concerned about study, time spending and life planning. Accordingly, we need to establish more various subjects and courses in order to offer more efficient university life to students.

6) Questioned about the impression 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NU), freshmen answered beautiful campus, free and open atmosphere and benefits of scholarship, in order. When they applied for admission to the university, 34.4% of them did not know well about the university, and they considered regional aspects as No.1 factor. They got information on universities from friends and senior students (31.1%). Just 27% of freshmen this year are proud of the university, but compared to 23.2% last year, the figure increased. Since there are some students (3.4%) who feel ashamed of themselves as students of CNU, we must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students to go to school with pride.

7) Most students determined their majors according to their own will, but some students (20.2%) did not. When choosing their major, they took into account job seeking after graduation, their aptitude and qualification. They were given information

on entrance requirements from friends, senior university students and guidebooks from universities. Many students (42.6%) chose their majors during the period when applications were accepted. Since some students (33.2%) turn out to have determined their majors without any information, it seems necessary to counsel students to make a wise choice. Most students want to work in the same field as their major. While 51.8% of the respondents want to stick to their current majors, 43.7% are considering minoring in another study, transferring or preparing for the nex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refore, academic counsel should be carried ou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a systematic way.

8) Freshmen want to take an academic advice from professors instead of having intimate relations with them. The students also want their professors to give advice on other fields of study, the point of view on life, social issues and personal problems.

9) For the entrance examination, 41.9% students have ever been tutored.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said to they were happy with their life in high school, and almost all students are social. Since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is increasing every year, we need to develop and provide programs for sound culture and relationship with the other sex.

10) The serious problems among freshmen are career, characteristics and aptitude and capability. Students usually deal with those problems by talking about them with their friends (54.3%), by themselves (17.1%) and by getting help from their mother (11.8%), siblings or relatives (8.3%) and father (3.6%). So,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for experienced adults to give right advice to students and we also should guide students through regular psychological and aptitude tests.

11) Students said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are extravaganc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distrust in politicians and the wealthy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y cited poor regional development and culture as problems of Jeju, so it is required to cope with regional development in Jeju

carefully. We can find out they have negative perspectives on our society. Therefore, social and political leaders should realize the problems and reform themselves.

12) Freshmen consider efforts and capability as the requirements for social success. 51.9% of them want to take counsel programs in the consultation service center, and the contents that they want are about jobs, graduate schools, university life, friends and social relations, study in other countries and so on.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students, the consultation service center and the comprehensive service center should get more professional and operate in a more systematic way. To this end, we need to g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the two service centers.